김제동 6번째 토크콘서트

metro
메트로 2014년 10월 8일 수요일 제0호 www.metroseoul.co.kr

돌아온 류현진 우려 벗었다

삼성전자 영업익 반토막 '충격'

3분기 4조1천억…3년 만에 5조 아래로 떨어져
"침체장·경쟁 뚫고 마지노선 지켰다" 평가도

위기가 곧 기회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3년여 만에 5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삼성전자는 7일 올해 3분기에 4조1000억원(잠정실적)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공시했다.

특히 역대 최고 실적이었던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위기에 강한 DNA를 지니고 있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위기 신호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출도 20% 이상 떨어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5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1년 4분기(4조6700억원)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이다. 3분기 매출액은 47조원이다. 매출액도 2분기(52조3500억원)보다 10.22%, 작년 동기(59조800억원)보다 20.45% 줄었다.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50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2년 2분기(47조6000억원)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이다. 이날 공시된 삼성전자의 잠정실적(가이던스)은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가 집계한 최근 한달간 22개 증권사의 영업이익 전망치 평균인 4조4756억원보다 낮은 것이다.

그러나 한때 일부 증권사들이 3분기 영업이익을 3조9000억원대로 내다본 최악의 전망치보다는 웃돌았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4조원이라는 마지노선을 지켰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 지속과 업계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같은 성적을 거뒀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삼성전자 실적 추이 (단위: 조원)

	2분기 2012년	3분기	4분기	1분기 2013년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014년	2분기	3분기(잠정)
매출	47.60	52.18	56.06	52.87	57.46	59.08	59.28	53.68	52.35	47.00
영업이익	6.46	8.06	8.84	8.78	9.53	10.16	8.31	8.49	7.19	4.10

자료/삼성전자 ⓒ연합뉴스

◆4분기 실적 회복 가능성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은 큰 폭 성장은 힘들 전망이지만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4분기에는 북미지역 쇼핑주간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TV 부문의 성수기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고 스마트폰 신제품의 판매 신장이 기대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제품 차별화와 중저가 스마트폰 라인업 강화, OLED 패널 등 부품사업 확대, 메모리 사업 강화 등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부문의 치열한 경쟁여건에서 중장기 지속성장을 위해 신소재를 활용한 스마트폰 신제품과 디자인을 혁신하고 가격 경쟁력을 높인 중저가 신제품 시리즈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단통법으로 시장 상황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도 삼성전자 스마트폰 단말기는 이전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단말기 판매 비중이 단통법 시행 이전 70%에서 9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다른 이동통신사에게서도 나타났다. KT는 80%까지 늘어났고 LG유플러스도 50%에서 75%까지 증가했다.

◆장기적 성장 동력 준비

삼성전자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정체를 감지하고 일찌감치 이를 준비했고, 실제 행동에 나섰다. 스마트폰 사업에 투입된 일부 인력을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사업부로 재배치하는 등 변화된 경영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했다. 특히 세계 최강인 D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반도체를 앞세워 또 다른 성장 엔진인 반도체 사업의 수익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삼성전자가 15조6000억원을 투자해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겨 평택고덕산업단지에 첨단 반도체 생산라인을 조성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반도체 사업 강화 전략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삼성전자는 미래의 캐시카우(수익창출원)로 주목받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시장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웨어러블(착용형) 스마트기기 시장에도 경쟁사보다 한발 앞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김민오기자 yoo@metroseoul.co.kr

악수하는 韓-코트디부아르 정상 박근혜 대통령과 알라산 드라만 와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채 많은 12개 공공기관 억대 연봉자 무려 2356명

국토위 이노근 의원 자료

부채가 많아 기획재정부로부터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목된 12개 공공기관에 억대 연봉을 받는 임직원이 2356명(2012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부채가 과다해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목된 12개 공공기관의 억대 연봉자가 235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관의 기관장 연봉은 평균 2억원이 넘고 직원 1인당 연봉도 평균 7000만원 수준이었다. 또 기관마다 연봉이 8000만~9000만원인 직원도 많아 수년 내 억대 연봉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140조원대의 부채를 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억대 연봉자가 15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임직원 6100명의 2.6%에 해당하는 숫자다. LH의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6574만원이었다.

부채가 60조원 규모인 한국전력공사는 1억원 이상 연봉자가 1264명에 달해 전체 공공기관 중 억대 연봉자가 가장 많았다.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7303만원이었다.

예금보험공사도 부채가 50조원에 육박하지만 기관장 연봉은 3억원이 넘고 전체 임직원 600명 중 억대 연봉자가 45명(7.5%)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가스공사는 임직원 3000명 중 억대 연봉자가 236명이었으며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8000만원이었다. /조현정기자 jh@metroseoul.co.kr

아이돌 수명 누가 결정하나

기자 수첩
전효진
<연예스포츠부 기자>

그룹 소녀시대가 8인 체제를 선언하며 2007년 데뷔 후 가장 큰 위기에 처해있다. 전문가들은 아이돌의 수명을 5~9년으로 본다. 군대와 나이가 아이돌 생명을 줄이는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최근 사례를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

소녀시대 제시카가 팀에서 제외되면서 탈퇴와 퇴출을 놓고 소속사 SM과 제시카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갈등의 중심에는 제시카가 지난 8월 론칭한 선글라스 브랜드 '블랑 앤 에클레어'가 있다. 팀 활동과 개인 사업의 이해 관계가 얽히면서 극단적인 상황에 이른 것이다. 사업가 타일러 권과의 결혼설도 제시카 논란을 키웠다.

앞서 그룹 제국의아이들 문준영은 트위터를 통해 소속사와의 불공정 계약을 고발했다. 소속사와의 수익 배분 비율이 7대3이며 100만 원을 벌면 30만 원을 9명이 나눠 갖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그룹 엑소 전 멤버인 크리스도 수익 분배에 불만을 토로하며 팀을 탈퇴했다.

아이돌의 수명은 멤버 개인의 의지와 소속사의 제작 관행으로 결정된다. 장수 아이돌의 표본인 신화와 최근 재결합한 god의 경우는 멤버들의 활동 의지가 팀 유지에 얼마나 주요한 지를 보여준다.

의지보다 절실한 건 아이돌을 상품으로만 간주하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개선이다. '신상'을 위해 업계는 활동 중인 아이돌의 자멸을 부추기는 경우가 비다반다. 최근엔 한류를 이용해 해외 활동에만 치중하면서 국내에선 잊히게 하는 게 대표적이다.

아이돌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지만 업계는 여전히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데에만 골두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선서하는 국방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뉴스

野 원내대표 경선 '합의 추대론' 고개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선출을 놓고 '합의 추대론'이 고개를 들면서 그 실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도온건파 모임인 '민집모' 소속 김동철·최원식 의원은 7일 "전면 한 원내 투쟁을 이끌어갈 적임자를 집단지성으로 추대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원내대표 경선 구도는 친노·범구주류 그룹의 우윤근, 이목희 의원과 신주류 그룹의 이종걸, 주승용 의원 등이다.

"외교관 자녀 162명 복수 국적 보유"

● 외교부 직원의 자녀 중 162명이 복수 국적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29일 현재 외교관 직원의 자녀 가운데 162명이 복수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경우가 14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北 미사일 대응 새 작전계획 수립 중

● 한미 군 당국은 유사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자산까지 동원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양국은 이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를 공식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경비정 1척 한때 NLL 침범

남북 함정 서로 사격 별다른 피해는 없어

북한 경비정 1척이 7일 오전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뒤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했다.

이 과정에서 남북 함정 간에 상호 사격이 있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오늘 오전 9시50분께 북한 경비정 1척이 연평도 서방 NLL을 약 0.5노티컬마일(약 900m) 침범했다"며 "이에 우리 군의 유도탄고속함 1척이 북한 경비정에 대해 경고 통신과 경고 사격을 실시했고, 북한 경비정이 대응 사격을 해 아군도 대응 사격을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한 함정은 모두 조준 사격을 하지 않고 경고 및 대응 사격을 했다"며 "우리 측의 피해는 없고 북한 경비정도 우리가 발사한 포탄에 맞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 해군의 유도탄고속함과 북한 경비정과의 상호 사격 당시 거리는 8.8km였다. 유도탄고속함은 최초 경고 사격 때 사거리 13km인 76mm 함포 5발을 발사했고, 대응 사격 때는 76mm 함포 10여 발과 유효 사거리 4~8km인 40mm 함포 80여 발을 발사했다. 북한 경비정은 기관총으로 추정되는 화기로 수십 발을 발사했다.

경고 및 위협성 대응 사격이었지만 남북 함정이 상호 사격을 한 것은 2009년 11월 10일 발생한 대청해전 이후 5년 만이다. /조현정기자

북한, 아시안게임 선수단 체류비 일부 지불

북한이 인천아시안게임 선수단의 체류비 일부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북측이 지불한 구체적 금액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북측이 선수촌에 묵은 비용 등 일부를 냈다"며 "조만간 남북협력기금 지원 상한액이 결정되면 북한 부담분을 빼고 우리측 단체에 북측 비용을 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 선수단의 대회 참가비, 선수촌 숙식비, 방송장비 임대료 등을 포함해 최대 1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대북 쌀 비료지원 연계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우기자 cyclone@

<어린이집>

"내년 보육료 예산편성 안해"

시·도교육감협 "정부시책 사업은 중앙정부서 부담해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내년 예산에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1429억원의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한 것이다.

6일 경기도 부천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연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 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 재정을 정상화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감이 관장토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3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교부토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를 근거로 들었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지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기관이 아닌 만큼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아울러 "현재 시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2013년도 세수결손 정산분 2조7000억원을 경기가 나아지는 시점까지 연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서리꽃이 피었어요 7일 강원 평창군 용평의 아침 기온이 영하 0.4도를 기록, 올가을 들어 첫 영하권 날씨를 보였다. 첫 서리와 얼음이 관측된 용평과 대관령 일원에 핀 꽃에 서리가 내려앉아 계절의 변화를 실감케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내년으로

서울시 "영동권 MICE 종합계획과 조율 필요"

한국전력 부지 옆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이 당초 계획과 달리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7일 "당초 한전 부지를 다음달 감정평가 후 연내 매각할 계획이었지만 영동권역 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산업) 종합계획과의 조율 등을 이유로 매각을 내년으로 연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지(3만1667㎡)는 2011년 서울의료원이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하면서 현재 비어 있지만 강남분원 형태로 장례식장과 30병상은 아직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영동권역 마이스 종합계획의 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매각 연기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체 밑그림이 내년 6월께나 나오는만큼 서울의료원 부지를 먼저 매각하면 모든 계획이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해당 부지를 매각하면 약 3000억원의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다혜기자

교통경찰도 권총 차고 112 신고 출동

앞으로는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경찰도 112 신고 사건에 출동하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12 신고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비상벨이라고 할 수 있는 112 신고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통경찰도 112 신고가 발생한 지점에 가까이 있으면 바로 출동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긴급출동 강력사건은 무기를 휴대하고 출동하게 돼 있어 교통경찰은 이런 사건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상시 권총이나 테이저건, 가스총 등으로 무장하게 된다.

고속도로에서 접수된 112 신고에 대해서도 고속도로순찰대가 우선 사건을 처리하고 나서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넘기도록 지침이 바뀌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교통 경찰관이 휴대용 조회기를 통해 신고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112 신고 시스템을 개선했다.

/윤다혜기자

'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체포

미국서 강제 추방돼 송환…구속영장 검토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미국에서 체포됐다가 강제추방된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가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인천지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씨를 비행기 내에서 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23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김씨는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검찰 조사에 불응하며 도피생활하다가 미국에서 먼저 체포됐고, 이날 한 달여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김씨는 주식과 부동산을 포함해 200억 원대의 유씨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종교기관에서 미화 2300만 달러(약 24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한 뒤 조사를 벌여 48시간 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다혜기자

유병언 금고지기로 불리는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가 7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 여객기에서 검찰에 체포돼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3곳 중 1곳 부적합"

환경부가 안심지하수 사업의 하나로 9개 시·군에서 지하수 수질 검사를 한 결과 3곳 중 1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9개 시·군에 있는 1만3913개 관정에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37.6%인 5226곳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남 해남군이 48.1%로 부적합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충남 서산시 43.0%, 충남 태안군 38.3%, 경북 김천시 35.3%, 경북 성주군 25.7%, 경기 포천시 17.1%, 경기 가평군 6.8%, 경기 연천군 4.3% 순이었다. 검출 항목을 보면 건강상 해로운 무기물질인 질산성 질소가 3485건(47.3%)으로 가장 많았다.

/조현정기자

우본, 국제우편전시회서 한국우정IT 홍보

우정사업본부가 지난달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국제우편전시회에 참가해 한국 우정IT의 기술력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통해 13억여 원의 수출 계약 성과와 184억 원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우본은 전국 우체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편물류정보시스템'과 '우편집중국 자동화 시설'을 시연했으며 우정사업본부의 지원을 받아 함께 참가한 국내 우정IT 기업 7개사가 자체 개발한 라벨프린터, PDA, 무인우편창구 등을 전시했다.

우본은 내년 상반기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Post-Expo 2015'에도 참가해 한국 우정IT 산업체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건보공단, 여의도공원서 '건강걷기대회'

국민건강보험 서울지역본부는 11일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한강 산책로를 일주하는 3km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국민건강보험 서울지역본부 주관으로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고 특히 나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해 나눔문화의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공단 가족들의 재능기부 공연과 이미테이션 가수 송대관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흡연폐해를 알리고 식주 아동 청소년의 금연퍼포먼스, 사진전시 홍보 측정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행사에 참가한 시민 모두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하며 행운권 추첨을 통해 LED TV, 김치냉장고, 자전거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된다.

Comic Con собрал эльфов и солдат

배트맨·아이언맨 다 모였네

metro Russia

코믹콘 참가자 눈길

배트맨, 아이언맨 등 전 세계 수퍼히어로가 모스크바에 모였다. 유명 만화·영화 캐릭터로 분장한 제1회 러시아 코믹콘의 참가자들이다.

행사 관계자는 "코믹콘은 영화와 만화, 게임 속 등장인물이 한자리에 모이는 가상 세계이자 세계 만화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영화·애니메이션 산업 박람회"라며 "박람회장에서는 아직 발매가 되지 않은 최신 게임도 체험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모스크바에서 처음으로 열린 만화 축제는 시민의 뜨거운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은 서로 만화 정보를 교환하고 피규어를 구경하며 축제 분위기를 만끽했다.

참가자 드미트리는 "코믹콘에서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을 배경으로 평소 좋아하던 킹콩과 사진을 찍었다"며 "만화를 매우 좋아하는데 코믹콘 행사가 러시아에서도 개최돼 기쁘다"고 했다.

코믹콘의 하이라이트는 참가자들의 코스프레 행렬이었다. 배트맨과 같은 영화 속 주인공은 물론 피터팬과 팅커벨 등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만화 캐릭터도 인기를 끌었다.

/예브게니 오뷰즈 기자· 정리=조선미기자

늪지대 따라 13km '머드 길'

metro France

프랑스 툴루즈에서 오는 18일 이색 머드 축제가 열린다.

'머드 데이'라 불릴 18일엔 늪지대를 따라 총 13km에 달하는 머드 길이 펼쳐질 예정이다. 영국에서 시작해 지난해 처음 프랑스에서 선을 보인 이 축제는 진흙이 가득한 길을 즐을 잡고 이동하기 때문에 색다른 스포츠 축제로 각광받고 있다.

축제에 참가할 예정인 32세 남성 토니오는 "아침에 한 번 5km 정도를 조깅하고 일주일에 한 번 수영을 하거나 자전거를 탄다.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건 축제를 하기 전 에너지를 단련하기 위해서다. 머드 데이엔 진흙 늪을 기어가는 대회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틸드 칼 브레노 기자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노모 손수레 태워 놀이동산에

metro HongKong

최근 한 중국 남성이 노모를 손수레에 태우고 놀이동산을 구경 다녀 많은 관광객을 감동시켰다.

장진바오(張金寶)는 국경절 연휴를 맞아 86세 노모와 함께 지난(濟南)시의 테마파크를 찾았다. 연로하고 다리가 불편한 그의 어머니는 난생 처음으로 놀이동산의 신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손수레 효심이 대단하다며 장진바오에게 아낌없는 칭찬을 보냈다.

/정리=조선미기자

홍콩 정부 - 시위대 대화

이번주 내 시작 합의…서부 초등학교 수업 재개

홍콩 정부와 시위대가 이번주 내 공식 대화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2017년 홍콩 행정장관(행정수반) 선거안 발표로 반중 시위가 벌어진 지 거의 열흘 만이다.

7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대학학생회 연합체인 홍콩전상학생연회의 레스터 섬 부비서장과 정부 측 라우퀑와 정치개혁 본토사무국 부국장은 전날 공식 대화를 위한 예비 접촉을 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여러 차례 대화하되 ▲대화는 직접적이고 상호존중의 기초에서 이뤄져야 하며 ▲정부가 대화의 성과를 확인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시위대 해산 일시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렁춘잉 행정장관은 시위대가 최대한 빨리 해산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시위대 측은 정부가 시위대를 서둘러 정리하려고 나설 경우 합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현재 시위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정부와 시위대의 협상이 결렬되면 시위는 다시 격화될 수 있다.

시위대의 규모는 정부 청사 봉쇄가 풀린 6일을 기점으로 크게 줄었다. 한때 20여만 명에 달했던 시위대 규모는 수백 명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시위 여파로 휴교됐던 홍콩섬 서부 지역의 초등학교는 이날 수업을 재개했다.

/조선미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7일(현지시간) 오전 홍콩 금융지구로 통하는 도로를 점령한 시위대가 확성을 든 채 거리에 서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숨막히는 기도 이슬람교도의 성지순례 하지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6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대성전에서 신도들이 기도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스페인 간호사 에볼라 감염

유럽 내 첫 사례

스페인 간호사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유럽인이 아프리카에서 에볼라에 감염돼 유럽에서 치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유럽 내에서 감염되기는 처음이다.

6일(현지시간) 아나 메토 스페인 보건부 장관은 에볼라 감염 환자를 치료하던 스페인 간호사가 에볼라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간호사는 고열과 구토 등 에볼라 감염 증상을 보여 마드리드 교외의 한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스페인 보건부는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해 이 간호사와 접촉한 사람들을 확인 중이다. 이 간호사는 44세 여성으로 결혼해 두 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은 에볼라를 막기 위해 공항 검색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지키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이라면서 "공항에서 에볼라 환자를 식별해 낼 수 있는 추가 검색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미기자

미국 80대 11중 추돌 한인수녀 등 3명 사망

미국에서 80대 노인의 난폭운전으로 한인 수녀 등 3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다.

6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시카고 오크론 지역에서 에드워드 카든스(81)가 트럭을 몰고 질주하다 맞은 편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11대를 들이받았다.

이번 사고로 카든스와 '미들렘머니오브베리시스터스' 수녀원 소속 김간정 수녀와 수녀 진 스티니 등 3명이 사망했다. 수녀들은 동료의 차를 탔다가 변을 당했다.

목격자들은 카든스의 차량 속도가 시속 130~160km에 달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카든스가 무모하게 질주해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차량 몇 대는 공중으로 치솟았다"고 밝혔다. 이어 "부상자 가운데 두 명의 생명이 위독하다"고 덧붙였다.

/조선미기자

62nd ANNIVERSARY

10월 9일
한화그룹 창립 62주년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Hanwha

에너지를 움직이다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
오늘보다 내일을 위한 신뢰
그리고 한걸음 더 앞선 도전
그렇게 오늘을 움직이고
내일을 키웁니다

원활한 소통이 만든 행복한 회사

이국명 기자의 알짜기업 탐방

ADT캡스 ㉓

평균 근속 11년 가족 같은 분위기
직원 자녀 대학 등록금도 지원
1박 2일 채용 캠프로 인재 선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ADT캡스 본사. '왠지 무겁고 딱딱할 것'이라는 보안회사의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직원들의 얼굴엔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1층 카페 등 사내 휴게 공간에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마치 가족·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 같은 친근감마저 느껴진다. '심리적 압박감'이 상대적으로 큰 보안 업종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표정을 이처럼 밝게 가지게 만든 ADT캡스의 비결은 무엇일까.

이해정 인재개발실 실장은 "'행복한 직원들이 행복한 회사를 만든다'는 기업철학에 걸맞은 소통이 원활한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11년에 달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친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직원고민 '타운홀 미팅'서 해결

전체 직원 4000여명에 달하는 ADT캡스의 소통문화는 규모가 작은 벤처기업 못지않을 정도로 활발하다. 직원들의 고민 사항을 경영진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도 전혀 거리낌 없다.

실제로 경영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올 추석 전 진행했던 '타운홀 미팅'에서는 "명절 보너스를 올려달라"는 직원들의 청원이 올라와 경영진이 바로 화답했다.

직원들의 고민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경영진이 적극 해결에 나선다는 점에서 소통 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평가다.

ADT캡스 사옥 1층 카페에서 직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동호회 활동도 ADT캡스의 자랑거리다. 야구, 캠핑, 마라톤, 테니스, 등산, 소프트볼 등 20여개 동호회에 연간 최대 200만원씩 지원한다. 특히 사내 커뮤니티를 통해 동호회 활동 내역을 적극 공유하고 우수 동호회를 선정해 보상금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덕분에 직원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다.

'공감 세미나'도 직원들에게 시원한 활력과 에너지를 선사하고 있다. 외부 명사와 전문가를 초빙해 강연을 듣는 형식으로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에도 유용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배우자·자녀 의료비도 지원

ADT캡스의 복지혜택은 생활 밀착형인 것이 특징이다.

직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까지 의료비를 지원해준다. 지난해 의료비보조금은 210여 건, 단체상해보험은 110여건이 신청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신입사원 조기 정착금, 결혼기념일 배우자 생일 축하 등도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다른 기업직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은 학자금 보조다.

직원자녀 중 중·고교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를, 특목·예외소재 중·고교생에게는 연간 400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특히 대학생 자녀에게는 학기당 150만~500만원을 실비 지원해 등록금 걱정을 덜어주고 있다.

초임 연봉도 3000만원대 초반으로 적지 않은 수준이다.

◆연간 350여명 인재 선발

ADT캡스의 인재상은 진정함과 적극성을 갖춘 프로페셔널이다. 이 같은 인재를 찾기 위해 올 3분기 공채부터는 1박2일 채용 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8가지 활동을 하면서 보여준 커뮤니케이션 능력, 리더십 등을 다각도로 평가할 계획이다. ADT캡스는 매분기 진행하는 채용캠프와 수시채용 등을 통해 연간 350여명의 인재를 선발할 방침이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이런 인재를 원한다

윤리·봉사정신 갖춰야 합격

"인성이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평소 봉사활동에 적극 참가하고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는 진솔한 마음이 몸에 배어 있어야 ADT캡스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해정 인재개발실 실장은 학벌, 학점 등 소위 스펙보다는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인재를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직원 간 소통이 활발해 보인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내채용이 활발한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된다. 충원이 필요한 부서에서 사내 공고를 올리면 입사 2년이 지난 직원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고졸 출신 출동직으로 입사해도 능력만 갖추면 마케팅, 기획, 인사 등 원하는 직무로 전환이 가능하다. 현재 인사개발실 절반 이상이 출동대원 출신일 정도다.

▶여성 직원들도 눈에 많이 띄는데

▶▶전체 직원 10%정도로 보안업체치고는 많은 편이다. 입사는 물론 승진에 남녀차별을 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덕분인지 여성 구직자들이 의외로 많이 지원한다.

▶합격 노하우는

▶▶거짓 없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채용캠프 등을 통해 다양하게 검증하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하기 힘들다.

/이국명기자

세상의 모든 여행을 기록하다 7일 서울 중구 내린프리 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모델들이 소니 하이엔드 액션캠 미니 AZ1을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기업 44% "채용 필수 자격 조건 있다"

학력·전공·학점 순

기업 10곳 중 4곳은 신입 채용 시 필수 자격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기업 177개사를 대상으로 신입 채용 시 필수 자격조건 존재 여부를 조사한 결과 43.5%의 기업이 자격 제한을 두고 있었다고 7일 밝혔다.

지원자가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기업의 44.2%는 '감점 처리'를 한다고 답했다. '무조건 탈락시킨다'는 응답도 20.8% 나왔다.

제한을 가장 많이 두는 항목은 '학력'(93.5%·복수응답)이었고 이어 '전공'(83.1%), '학점'(72.7%), '외국어 성적'(50.6%) 순이었다. /문승희기자

외국어1위 영단기의 인재양성서비스 '취업단기'가 함께하는 생생한 취업Q&A

'회사언어'로 자소서 작성하라

Q 읽기 좋은 자기소개서를 쓰는 요령이 있나요? 또 선택사항이나 기타사항도 반드시 채워야 하나요?

A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사람은 회사의 구성원들입니다. 회사원들은 매일같이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평가하기 때문에 보고서 형식의 표현에 익숙합니다. 따라서 수필 쓰듯 읽기 좋게 쓴다고 해서 좋은 자소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고서란 내가 해야 할 이야기를 간략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그 회사가 좋아하는 '회사언어'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업계에서 쓰이는 용어를 활용해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표현을 사용하면 더 잘 쓴 보고서처럼 보이게 됩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언어나 좋아하는 문구는 회사 사이트만 잘 살펴도 알 수 있습니다.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자에게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회사언어와 더불어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의 현재 상황과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매출 흐름이 바뀌어 가고 있는지, 지난해와 비교해 현재 조직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꺼지 잘 알고 있다면 좋은 자소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해서는 좋은 자소서가 될 수 없습니다. 읽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언어로 작성한 눈에 잘 들어오는 자소서를 완성하세요.

또 자소서의 공란은 반드시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소서 채점은 사이트에서 인쇄한 뒤 일일이 채점하는 겁니다. 인쇄를 했을 경우 글을 잘 쓰든 못 쓰든 글이 빽빽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정말 차이가 큽니다. 비어있는 항목이 있다면 읽기도 전에 빈약한 자소서라는 편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글을 적을 수 있는 칸은 다 채운다'는 생각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인사담당자들은 선택항목이 기재된 이력서를 그렇지 않은 이력서보다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자수 제한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 명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가끔 하고 싶은 말이 많아 그 제한 글자수를 조금 넘기는 지원자들이 있는데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정해진 규칙은 지키고 쓰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두 지켜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단기(www.conects.com/job) 제공
정리=이국명기자

"잠 못자는 건 여전… 공부시간만 줄었죠"

[르포] 9시 등교 시행 한 달… 고교 교실 가보니

6일 경기도교육청의 '9시 등교' 정책이 시행된 지 한달이 지났다.

수원고등학교는 한달 전보다 1시간 가량 등교 시간을 늦췄다. 이 때문인지 이날 오전 8시 20분 등교하는 학생들의 발걸음에는 여유가 묻어났다.

교문 앞에서 만난 김모(18)군은 "9시에 등교를 하면 교통이 불편해 아버지 출근 시간에 맞춰 등교를 했다"며 "수면 시간이 늘거나 수업 집중도가 높아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일찍 등교한 학생들을 위해 개방한 자율 학습 교실을 찾았다. 텍텍한 책상에는 5명의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다.

한 학생은 "등교 시간이 1시간 늦춰지면서 야간자율학습 시간이 1시간 줄어들었다"며 "보잠 못 자는 건 같은데 공부 시간만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시간 정도 시간을 버리는 것 같아 일찍 등교해 자율학습을 따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학생은 "오후 5시 20분이 하교시간인데 보충수업이라도 하게 되면 6시에 끝나 바로 학원을 가야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오전 8시 55분 교문 앞. 등교 시각 5분 전을 앞두고 9시 등교 시행 전과 같이 학생들로 북적였다. 교문 앞 선생님의 "지각이다"라는 함성에 발이 분주해지는 모습이다.

이날 지각을 면한 이모(17)군은 "그 전보다는 등교 시간이 늦춰져 지각이 조금 줄었다"면서 "그러나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그 전과는 달라진게 없다"고 말했다.

6일 오전 9시 등교시간을 앞두고 수원고등학교 학생 몇몇이 자리에 앉아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대다수 학생들은 9시 등교로 인해 하교 시간이 늦어지게 돼 결국 수면시간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오히려 피로감, 점심시간 조정, 하교시간 지연, 교통불편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일각에서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시행되면서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온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고3 수험생의 등교시간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학교 측은 "현재 1, 2학년만 9시 등교를 시행하고 3학년은 수능에 대비해 8시까지 등교를 하고 있다"며 "내년 3월에는 3학년도 9시 등교를 시행해야하는 건지 혼란스럽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여러 부작용이 있는데도 9시 등교제 전국 확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폐해는 눈감은 채 9시 등교제의 확대를 위해 근거 없는 정책효과 홍보로 교육본질에 대한 논쟁이 사라지는 현상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9시 등교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가·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사진/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국제적 명성' 홍콩 이공대학

국제학생에게 장학금·숙소 제공

홍콩 이공대학(PolyU)은 지식과 가르침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다.

PolyU는 1937년 설립이래, 33만 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고 다수는 각자 전문분야의 리더로서 홍콩경제 건설에 기여하고 있다.

본교 캠퍼스는 바로 홍콩 중심에 있어 중심가와 주요 관광지 접근이 쉽다.

홍콩 대학은 유일하게 직무통합교육 정책을 교과과정에 반영해 직무기반 학습을 촉진하고 있다.

연간 50개 국가의 1000명 이상의 국제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6개의 학과와 27개 단과대학에 2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개설돼 있다.

PolyU은 수료과정에서 박사학위 과정까지 다양한 과정을 제공한다. 모든 과정이 정식 인가 과정이며 특히 실무응용능력과 업계에서의 전문적 적합성이 핵심 강점으로 꼽힌다.

학사학위 정규과정의 연간 수업료는 약 1만5400 달러(HKD 12만)이다. 학업성적 우수자와 학업의 성과가 뛰어난 학생에게 4년간 최고 약 8만2000 달러(HKD 64만)의 장학재택이 제공된다.

홍콩 이공대학 본교 캠퍼스 모습. /홍콩 이공대학 제공

국제학생에게는 전액 또는 부분장학금과 숙소가 제공된다.

신입학부과정의 국제학생은 캠퍼스에서 도보 거리에 있는 학생 레지던스 홀에 숙소 신청이 가능하다. 한 학년 동안 약 1600달러(HKD1만2500)의 임대료로 2인1실 방식의 4인용 룸에 거주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polyu.edu.hk/ia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다혜기자

원광디지털대 '요가 페스티벌' 열어

원광디지털대학교는 최근 서울캠퍼스 대강당에서 요가명상학과 10주년을 기념하는 '요가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요가 초청 강연, 요가명상학과 10주년 기념 행사·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개인전 최우수상은 '깨달의 길'을 주제로 요가 동작을 선보인 한공엽(10학번)씨에게, 단체전 최우수상은 서울경기지역팀(권영미 씨 외 8명)에게 돌아갔다.

3일 열린 요가페스티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서울경기지역팀 모습. /원광디지털대 제공

market index <7일>

코스피	코스닥
1972.91	582.82
(+4.52)	(-3.45)

금리	환율
2.28	1067.80
(+0.03)	(-0.90)

뉴스&뉴스

98형 울트라HD TV LG전자가 98형 울트라HD TV(제품명:98UB9800)를 국내시장에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LG전자 제공

기업 70% "공시제도 복잡"

●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현재 공시제도가 복잡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상장회사 공시제도 현황과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공시제도의 난이도에 대해 복잡하다는 의견이 72.9%(매우 복잡 7.5% + 다소 복잡 65.4%)로 적절하다는 의견(27.1%) 보다 훨씬 많았다.

계열사간 거래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거래규모를 예측하기가 어려움에도 공시한 이상 거래 금액이 이후 실거래 금액과 20% 이상 차이가 나면 신규로 다시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절차가 매우 번거롭고 복잡하다는 주장이다.

/서보훈기자 [illegible]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최고가

●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아이파크가 서울 아파트 중 3.3㎡당 매매가가 가장 높은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0월 1주차 시세 기준 서울 아파트(재건축 단지 제외, 주상복합 포함) 총 111만9500가구를 대상으로 3.3㎡당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 강남구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공급면적 243㎡가 5203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3.3㎡당 평균 매매가 1499만원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김민지기자 [illegible]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운니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편집인	남규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제작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4·5
독자센터	02)721-9801

[illegible]

최성준 "단통법, 시간 두고 지켜보자"

시행 초기 각종 논란 해명 나섰지만 뚜렷한 대책 없어

"아직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초기인 만큼 시간을 더 갖고 지켜보자. 단통법의 진정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 기다려달라고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전 국민 호갱(호구+고객님) 만들기 법'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접 전면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 단통법과 관련된 비난 여론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통법 시행 이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느낀 부분도 많고 안타깝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었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단통법의 가장 큰 목표는 몇년 동안 반복적으로 겪어온 이용자 차별적인 불법 보조금 행위를 근절해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소비자의 불평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조금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이제껏 다른 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법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도 출고가가 부풀려진 것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는 "통계상 해외와 비교했을 때 국내 출고가가 높은 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제조사는 같은 기종이라도 해외와 사양 차이가 있다고 해 뭐라 얘기할 수 없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조사가 만일 사양의 문제라고 한다면 일부 사양을 낮추더라도 더 저렴하게 단말기를 공급할 수 없는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출고가가 어느 선까지 내려와야 한다고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언론과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 단통법으로 인해 가계 통신비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 시행초기라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법 시행 초기 상황만을 놓고 단통법이 잘못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면서 "이동통신사나 휴대전화 제조사도 법 시행에 따른 시장상황에 맞춰 소비자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소비자들도 단통법 시행 초기 이통사 지원금이 낮으니 휴대전화 구입을 하지 않고 알뜰폰이나 중국, 일본 등 저가 단말기를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이통사도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금을 높이고, 휴대전화 제조사도 단말기 판매를 위해서는 출고가를 낮출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만일 시장상황이 계속 부정적으로 흘러갈 것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가 시장에 마음대로 개입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시장 논리가 원활히 잘 이뤄진다면 이에 대한 걱정은 없다"고 답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초기 논란과 관련한 해명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한편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분리공시 도입의 재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썬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향후 이동통신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어떤 형식으로 분리공시를 접근해 나갈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영기자 ly0403@metroseoul.co.kr

섬에서도 인터넷이 펑펑 KT는 7일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서 '기가 아일랜드' 구축 선포식을 열었다. KT IT서포터즈와 간호사가 주민들에게 휴대용 자가진단 소변분석기 '요닥' 서비스를 공개하고 있다. KT는 인터넷 이용률이 낮은 도서 지역 중 연내 기가인터넷 공급이 가능한 임자도를 제1호 기가아일랜드로 선정하고 구축된 기가 인프라를 기반으로 교육, 문화, 에너지, 의료, 지역경제 등 5개 분야에서 도심과의 정보 격차 해소에 나선다. /KT제공

알뜰폰 가입자 400만명 돌파

대기업 계열 과반 차지… 우체국 판매효과 톡톡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알뜰폰의 가입자수가 400만명을 돌파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월 말 현재 알뜰폰 가입자수가 413만명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미래부가 출범한 지난해 3월 말 기준 159만명에서 1년6개월만에 2.7배 늘어난 것이다. 전체 이동전화 시장 가입자 5600만명의 7.3%에 해당하는 수치다.

미래부 출범 이후 알뜰폰 가입자수는 시장포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 활성화 정책과 업계 노력에 힘입어 월 평균 14만3000명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2분기에는 20만6000명, 3분기에는 21만6000명으로 가입자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망 임대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망 사업자(9개사)의 가입자수는 156만8000명, KT망 사업자(14개사) 185만1000명, LG유플러스망 사업자(6개사) 31만8000명으로 4.7 대 4.5 대 0.8의 비율을 나타냈다.

기업군별로는 이통3사 자회사를 포함한 대기업 계열 사업자의 가입자수는 228만4000명, 중소사업자는 185만3000명으로 대기업 계열 사업자의 비중이 55.2%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은 19%로 SK텔링크가 67만5000명, KTIS 7만7000명, 미디어로그가 5만6000명을 기록했다.

우체국 알뜰폰 효과도 두드러졌다. 현재 우체국에 입점한 중소 알뜰폰 6개사의 가입자수는 168만명으로 전체 중소사업자의 90.6%를 차지했다. 이중 지난해 9월 말부터 판매를 시작한 우체국 알뜰폰 가입자 수는 8월 말 현재 13만3000명에 달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달 중 기존 6개 사업자 외에 5개 중소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차재문기자 [illegible]

국세 73만명 7조원 체납

서울 거주 편중 심화

국세 1억원 이상의 상습 고액 체납자 수와 체납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국세를 체납한 인원은 73만2903명에 체납 세금은 7조2584억원에 이르렀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체납 인원은 30만5249명에 체납액은 5조4601억원이었다. 2년반 만에 체납인원은 9% 줄었으나 체납액은 33% 증가하며 고액 체납자가 늘어나는 양상이다.

특히 1억원 이상의 상습 고액 체납자는 같은 기간 4816명에서 6925명으로, 체납액은 2조370억원에서 3조2049억원으로 각각 44%, 57% 늘어났다.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는 같은 기간 219명에서 330명으로 1.5배로 늘어났다. 체납액은 1조233억원에서 1조7533억원으로 1.7배로 증가했다.

또 박 의원실이 체납자를 거주 지역별로 살핀 결과, 전체 체납자의 25%가 서울에 거주했으며 상습 고액 체납자일수록 서울 거주 편중 현상이 심화됐다.

1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전체의 36%가 서울에 거주했으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조8962억원에 달했다. 1억원 이상 전체 체납 세금의 59%에 이르는 금액이다.

박 의원은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 정리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지기자 [illegible]

금융사기 봉쇄 나선다

신한·BC카드·농협 등 피해 막게 FDS 구축 박차

나날이 지능화되어가는 보이스피싱과 파밍등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이 주목받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여신금융협회와 금융당국은 FDS를 구축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만이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하는 등 시중은행과 카드사에 FDS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고 있다.

금융사기 의심거래에 대해 즉시 이체를 정지하는 FDS도입을 통해 부정사용을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카드사다.

앞서 신한카드는 지난 8월 카드 승인시점에 정상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FDS를 국제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국제카드의 경우 사고 추적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국내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 매출을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해외거주자가 국제카드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위변조된 국제카드로 국내 사용시 승인시점에서 정상여부가 판단되며 이상거래도 상시 모니터링 된다.

BC카드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정보유출 등 체크카드만의 부정사용 특성을 반영한 체크카드 전용 FDS를 구축, 회원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용·체크카드를 소지한 회원은 카드 분실이나 도난, 위변조 시그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PG사들도 FDS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간편결제서비스를 위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카드정보를 저장하려면 반드시 자체적으로 부정거래방지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도 FDS도입을 준비 중이다.

NH농협은행은 올 연말까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할 예정이다.

누리어시스템, 농협정보시스템과 공동으로 구축될 'FDS'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거래정보 추출과 관리, 이상징후 탐지·대응 등 진보된 기술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성모 NH농협은행 스마트금융부장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참여해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FDS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고객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신한은행, 부산은행, KB국민카드는 이미 전사적으로 FDS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하나은행은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금융 피해만을 전담 조사하는 센터를 구성하는 한편 FDS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김영린 금융보안연구원 원장은 "FDS는 전자금융과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편의성과 함께 보안성이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구축의 일환"이라며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아란기자 alyell303@metroseoul.co.kr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NH농협은행은 인생 2막을 시작하는 만 50세 이상 고객을 위해 "꽃보다 그대! 당신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환전·해외송금·외화예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농협은행 제공

63빌딩에 우리농산물 직거래장터 한화생명은 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9(?)층 우리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열고 인근 주민들과 임직원들에게 자매결연을 맺은 마산리마을 농산물을 판매했다. 차남규(왼쪽 다섯째) 한화생명 대표이사 사장과 임직원, 마을주민들이 판매 농산물을 선보이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AIG손보, 외화차보험 철수

중소사, 틈새시장 노려 선점 경쟁 본격화

AIG손해보험이 지난 1일부터 국내에서 90% 이상을 독점하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화표시 자동차보험(이하 외화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이에 중소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틈새시장 선점을 위한 물밑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AIG손보는 지난 1일부터 상해보험에 주력하기 위해 외화자보험의 신규·갱신 업무를 중단했다. 이 회사는 2년 전 국내 일반자동차보험(원화표시자동차보험) 영업을 중지해 당분간 국내 자동차보험에서 철수 할 것으로 보인다.

외화자보험은 ▲외국인 소유 자동차 ▲주한미국의 용역납품·건설 등에 제공되는 자동차 ▲외국인 전용 관광자동차 ▲외국자본 또는 자본에 의해 설립된 회사소유 자동차 ▲주한미국 주둔지역 또는 외국기관에 출입을 요하는 자의 차량 등에 대한 상품이다.

국내 중소 손보사들은 AIG손보의 철수 소식에 독점업체의 공백과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마진이 예상되는 외화자보험 분야에 영업의지를 보이고 있다.

가입자가 주로 주한 미군이나 대사관 직원, 주재원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이기 때문에 주말이나 정해진 구역에서만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보험보다 사고율이 낮은 것도 장점이다.

반면 외화자보험은 국내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 10조원(지난해 수입보험료 기준)의 0.5%에 불과해 삼성, 현대, 동부 등 대형손보사는 상대적으로 이보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중소보험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외화자보험 영업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시장은 연 규모가 45억~50억원 수준으로 일반자동차보험시장보다 미미하기 때문에 삼성, 현대, 동부 등 대형사보다는 중소형사들의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은행권 하반기 공채, 스펙보단 '인성' 중시

은행권의 하반기 공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스펙보단 '인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하반기 정규직 행원 290여명 채용에 서류 응시자은행권 하반기 공채, 스펙보단 '인성' 중시'가 2만여명에 달했다.

지원시 학력, 성별,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격증이나 해외연수 경험 등은 적지 않도록 하는 '열린 채용'을 도입했다.

국민은행은 1차 면접에서 자신이 읽은 인문학 서적을 토대로 면접관과 토론하는 '통섭역량면접'을 신시한다. 국민은행이 서정기 판매량을 토대로 선정한 인문학 권장도서 30권 중 지원자가 읽은 책을 지원서에 표기하면 면접관 2명이 책의 내용과 관련해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다.

농협은행에는 일반직과 전산직 140명 모집에 총 1만8800명이 지원서를 제출했다.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면접전형에는 지원자가 창구 직원을 연기하는 '롤 플레이' 면접을 한다.

우리은행은 200~250명 모집에 총 2만3000여명의 지원서를 접수, 채용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골라냈다.

기업은행은 160여명 채용에 2만4000여명이 지원서를 제출했다. 22일 서류합격자 2000명 가량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한은행은 일반직 200명 모집에 2만여명이 지원서를 냈다. 이들 중 채용인원의 4~5배수를 걸러 1·2차 면접과정을 거친다.

/김민지기자 minji@

무이자·저금리 유예할부상품 출시

아주캐피탈은 7일 한국GM과 쌍용차를 대상으로 무이자·저금리 유예할부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유예할부상품은 만기시까지 이자만 내다가 만기시점에서 이자와 원금을 모두 내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한국GM의 스파크·크루즈·트랙스·캡티바·올란도를 구매하는 고객은 차량가의 절반을 무이자 원금균등으로 36개월간 갚아나가고, 나머지 절반은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금리는 연 5.8%에 대출기간은 12~36개월에서 선택할 수 있다.

쌍용의 체어맨은 무이자와 유예할부를 결합한 상품이다. 이는 차량가의 절반에 대해 원금만 36개월간 내고, 나머지 절반은 만기 때 상환하면 된다.

코란도C는 5년 장기 유예할부상품으로, 5.5% 금리에 만기 시점에 유예금의 전부를 상환하면 된다. 차량가의 75%에 대해서만 원금과 이자를 원리금균등방식으로 갚아나가고,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이자만 내면 되는 방식이다.

한편 체어맨과 코란도C 대상 유예할부상품은 선수금 10%를 내야 한다.

/백아란기자 alyell303@

<상장지수증권>

ETN, 다음달 10개 종목 첫 출범

12조 시장… 대우·우리·삼성·한국·현대·신한 등 9개사 참여

개인투자자가 구글이나 알리바바와 같은 해외 우량 대형주에 손쉽게 투자하고 1만~2만원의 소액으로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효과를 노리는 상장지수증권(ETN)이 다음달 출범을 앞뒀다.

현재 18조원에 달하는 시장으로 성장한 상장지수펀드(ETF)와 함께 장내 시장의 양 날개짓을 펼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거래소는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1월 17일 해외 원자재 기업 1곳을 포함한 10개 종목을 시작으로 ETN 시장을 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TN은 기초지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이다. 수익 구조상 ETF와 유사하지만 만기가 있는 점이 다르다.

ETN은 3년, 10년 등 지수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기간이 있으므로 만기 도래 환매시 배당소득세를 부담한다.

만기 전 장내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ETF와 달리 증권사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하므로 자기자본 요건 등을 충족한 증권사에만 허용된다.

현재 ETN 발행자 요건은 자기자본 1조원 이상, 신용등급 AA 이상, 영업용순자본비율(NCR) 200% 이상인 증권사다.

이를 충족하는 대형 증권사 9곳 가운데 대우·우리투자·삼성·한국투자·현대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시장 개장과 함께 참여한다. 미래에셋·대신·하나대투증권은 내년 참여할 전망이다.

이들 증권사의 총 자기자본(24조원)의 50%까지 발행이 허용되므로 최대 시장 규모는 12조원이다.

증권사 파산 리스크는 실시간 공시를 통해 최대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다. 국고채 등 발행사 신용등급을 초과한 투자대상으로 ETN을 구성할 수 없다.

운용상 제약이 많은 ETF와 달리 ETN은 지수화할 수 있는 기초자산이라면 자율적인 운용을 할 수 있어 상품개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또 수익 구조상 헤지 기능을 활용하므로 대형 투자은행(IB)들이 그동안 시도했지만 지지부진했던 헤지펀드 영역에서 새로운 성장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장 심사기간도 ETF(45일)의 3분의 1인 15일로 줄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였다.

재테크 상품으로서 ETN의 가장 큰 강점은 기초지수 구성종목 수가 5종목 이상으로 완화된 점이다. 현행 ETF는 10종목 이상이다.

이용국 유가증권시장본부 증권상품시장부서장은 "해외 우량종목 5개만 있어도 지수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글로벌 IT기업인 구글과 알리바바를 지수화한다면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수단을 제공할 여지가 생긴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커버드콜, 롱숏·섹터순환 등 헤지펀드에서 구사하는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ETN 상품들이 상장하면 개인투자자들은 소액으로 다양한 수익 창출 기회를 얻게 된다.

먼저 ▲전략지수 ▲혼합지수 ▲바스켓지수 ▲해외주가지수 ▲채권지수 ETN 등을 선보이고 추후 ▲변동성지수 ▲MLP(에너지 관련 인프라 투자) ▲원자재 ▲ETF 기초자산 ETN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수년째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ETN의 투자 매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롯옵션 전략지수 ETN의 경우 박스권에서 월 지수 등락폭이 5% 이내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수익구조가 가능하다.

이 부서장은 "저금리 저성장 시대를 맞아 더 많은 재테크 수단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증대됐다"며 "ETF 시장과 별도로 ETN 시장을 개설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김현정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보험사 10%대 약관대출 논란

최근 가계 소득흐름이 악화되면서 보험사에 계약된 보험금을 담보로 한 보험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교보생명, 흥국생명 등 일부 생명보험사들과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손보사들은 한자릿수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약관대출을 통해 최고 10%대의 이자 수익을 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이 7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보·흥국·현대라이프·라이나생명 등의 약관대출은 최고 1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삼성·신한·한화·KDB·미래에셋·KB·알리안츠·우리아비바·IBK연금·AIA·푸르덴셜·ING·메트라이프·PCA·ACE생명 등 생보업계와 삼성화재·현대해상·흥국화재·LIG손보·한화손보·메리츠·동부화재·에이스보험 등의 손해보험업계도 9%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보험사의 대출금리는 보험계약자들에게 지급되는 만기보험금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약 5% 수준)인 기준금리와 보험사가 결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이 중 약관 대출은 은행 대출과 같은 소비대차가 아닌 장차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법적 성격을 띤다.

약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수준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생보사의 약관대출액은 총 39조5932억원으로 전체 대출채권 총액의 43%에 달했다.

한편 보험사 측은 "예정이율이나 공시이율은 계약자가 다시 가져가는 것이므로 해당 금리는 인건비와 시스템 구축비 등 위한 비용을 제하면 높은 수준이 아니다"며 "고객에게 적립해주는 보험 상품 금리보다 대출 금리를 낮춰 손해를 감수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김형석기자 [illegible]

자동차 특화 서비스 카드 출시 KB국민카드는 7일 SK네트웍스와 손잡고 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스피드메이트 KB국민카드를 선보였다. 스피드메이트 멤버십 서비스 월 1회에 스피드메이트에서 엔진오일 교환 시 3만원 할인한 2회과 외부 세차 무료(연 3회), 정비 공임 2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 제공

금리 인하 신중론으로 급선회?

자금 이탈 우려 등으로 동결론 만만찮아

한국은행이 9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한 이후 10월에도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것이란 기대감이 모락모락 피어 오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자금이탈 우려등 후유증이 적지않아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은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9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정해방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소폭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정 위원은 인하 폭을 명시하지 않고, 소폭 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정 위원은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5%로 7월 전망에 비해 성장경로가 다소 하방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제적인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연속적인 금리인하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 금통위원은 "내수 부진과 저물가 장기화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지만 세계적 양적완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등은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하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가도 이달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금통위의 주요 참고지표 가운데 하나인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한 데다 저물가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어서다.

권영선 노무라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25bp 내린 연 2.00%로 결정될 것"이라며 "시장은 10월 25bp 인하 가능성을 아직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한은이 금리 인하를 추가로 단행할 경우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향후 미국이 조기 금리인상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미국과 금리 정책이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데 따른 자금 이탈도 우려된다.

이재승 KB투자증권 채권분석팀장은 "향후 미국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면 급격한 원화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새누리당) 의원도 7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3% 중후반대인 상황에서 과연 금리인하가 필요한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김한나기자 [illegible]

스마트 트리플 찬스 이벤트 신한금융투자는 스마트폰 주식거래 채널(MTS)인 신한 아이스마트(i Smart)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 면제와 사은품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스마트 트리플 찬스 이벤트를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 제공

"랜드로버보다 나은 인테리어 자부"

렉서스 NX 총괄 카토 타케아키 수석 엔지니어

터보·F 스포츠 모델 내년 한국 도입

렉서스의 새로운 크로스오버 SUV인 'NX'가 7일 한국 언론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행사에는 NX의 개발을 총괄한 카토 타케아키(사진) 수석 엔지니어가 참석해 한국시장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RX는 시대를 앞선 느낌이었는데 NX는 경쟁사보다 데뷔가 좀 늦은 감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개인적으로 나도 이 차가 더 빨리 나왔으면 했다. 렉서스로서는 약한 부분을 더 먼저 해결하자고 생각하다보니 NX의 데뷔 순서가 늦어진 게 있다. 'NX 한 차종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져서 시장상황이 좋지 않았다.

-이번 모델은 과거 렉서스와 달리 좀 더 강렬한 인상으로 바뀐 듯하다. 한국에서는 디자인에 대해 '호불호'가 나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많은 이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보다는 렉서스를 만족하는 이들을 더 많이 만족시키자는 방향을 택했다. 스핀들 그릴이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일본이나 유럽, 미국에서도 지나치게 진보적인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실제로 보면 사진보다 멋지다'라는 의견도 많다.

-렉서스 ES 하이브리드의 파워트레인과 비교해 어떤 차이점이 있나.

엔진의 기본은 같고, 4륜구동으로 하기 위해 새로 개발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파워컨트롤 유닛(PCU)의 경우 앞바퀴굴림은 프런트 모터만 제어하면 되지만 4륜구동은 리어 모터도 지시를 해야 한다. 각각의 모터를 냉각해야 하는 점도 다르다.

-'프리로드 디퍼렌셜'은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

부하가 적게 걸리는 구동 때 차동을 제어하는 개념으로, 앞바퀴에 적용돼 있다. 이는 미끄러운 노면에서의 선회성과 고속 직진 안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기본적으로 리미티드 슬립 디퍼렌셜(LSD)과 같은 구조지만 이를 스프링을 넣어 제어하는 건 렉서스 최초다.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버전도 나오나.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힘들다. 프리우스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버전이 있는데, 차 가격이 비싸다. 따라서 정부의 세금의 지원이 있다면 NX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 과정에서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나.

NX는 3가지의 개발 제안 중 B안으로 정하려고 했는데 20대 후반~30대 초반 젊은이들에게도 물어봤더니 최종적으로 C안으로 바뀌었다. C안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진보적인 스타일이었다.

여성을 배려한 설계도 많다. 개발에 참여한 여성이 "남편이 운전할 때 화장거울을 보면 신경이 쓰인다"는 의견을 내서 수납공간 커버 뒤에 거울을 다는 방법을 생각했다. 덕분에 손거울을 핸드백에 항상 넣고 다니는 불편이 해결됐다. 스마트폰을 콘솔박스 위에 놓고 충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PET 병을 한손으로 열 수 있도록 한 것도 운전자를 세심하게 배려한 부분이다. 인테리어는 재규어 랜드로버 등 영국차보다 낫다고 자부한다.

오디오의 경우 MP3 파일 같은 압축 음원에서 손실된 음을 보완해 재생하는 기능을 갖췄다. 음원을 리커버리하는 기능은 뉴 IS도 있지만 음원을 튜닝하는 기능은 NX가 렉서스 최초다.

-여전히 독일 라이벌에 비해서는 라인업이 약하다. 더 늘릴 계획이 있는지.

그런 의견을 내부에서도 갖고 있어서 어떻게 할 지 고민하고 있다. 이제 브랜드 방향성이 정해졌기 때문에 개발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인업을 많이 늘리고 싶긴 하지만 BMW처럼 '1, 3, 5, 7시리즈가 있으니까 2, 4, 6시리즈를 추가하자'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디젤차를 선호하는 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디젤차는 질소산화물(NOx)이 많다. 대기오염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정말 디젤이 친환경적인지 고민할 때다. 독일 업체들도 하이브리드카를 최근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는 유럽에서 분진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터보와 F 스포츠를 내년에 한국에 도입하면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정재학기자 ferrari@metroseoul.co.kr

'비욘드 오피스'로 글로벌 지향

한컴 미래전략 발표

"어떤 문서형식이나 운영체계, 기기에서도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내는 오피스를 만들겠다."

한글과컴퓨터(한컴)가 7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에서 '한컴오피스 2014 VP'를 선보이며 이같은 미래 오피스 전략을 공개했다. '비욘드(Beyond) 오피스'로 이름 붙여진 이 전략을 통해 글로벌 소프트웨어(SW)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내년 3월에는 언제 어디서나 디바이스 종류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방식의 오피스 프로그램 '넷피스(Netffice)'를 선보일 방침이다. 넷피스는 독자적인 클라우드 플랫폼인 '한컴 큐브'를 기반으로 서비스될 예정이다.

한컴은 윈도는 물론 맥, 안드로이드, iOS 등의 OS(운영체제)에서도 한컴 오피스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메타OS' 전략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과거에 개발됐다 수요가 적어 사라졌던 리눅스용 오피스의 지원도 약속했다.

이보다 앞서 9일 한글날에는 신제품 '한컴오피스 2014 VP'를 출시한다. '한컴오피스 2014 VP'는 한컴이 지난해 '한컴오피스 2014'에 이어 1년 만에 선보이는 제품이다. 인터넷상에서 최대 5명까지 동시 원격 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문서를 열기 전 악성코드를 탐지할 수 있는 엔쉴드 기능도 강화했다. 한셀에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스파크라인 편집기능 등도 추가했다.

이홍구 한컴 대표는 "한컴은 24년간 국내 오피스 시장을 이끌어 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진 기업"이라며 "국내외 모든 표준 문서포맷을 가진 한컴오피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선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첨단 IT 트렌드를 접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미기자 kmine@

이것이 A-PRO 프로페셔널 DJ 헤드폰 7일 서울 한남동 일신다이어울 아티잔에서 열린 '칼러스 A-PRO 프로페셔널 DJ 헤드폰' 런칭 기념 행사에서 홍보도우미들이 신제품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RO는 간편한 휴대를 위해 작게 접히는 디자인을 적용하였으며 4.7m까지 연장되는 코일 섹션을 가진 1.3m의 코일 케이블을 갖추고 있다. /뉴시스

삼성重 쇄빙유조선 3척 또 수주

영하 45도에도 거뜬… 1.4m두께 얼음 깨고 항해 가능

삼성중공업이 지난 7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쇄빙유조선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중공업은 7일 유럽 지역 선주사로부터 쇄빙유조선 3척을 4718억원에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쇄빙유조선은 길이 249m, 폭 34m의 4만2000DWT급이다. 러시아 야말 반도 인근의 노비포트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를 부동항인 무르만스크까지 운송하는 항로에 투입될 예정이다.

통상 극지방에서의 원유 운송은 쇄빙선이 앞에서 얼음을 깨고 뱃길을 만들면 유조선이 뒤따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쇄빙유조선은 두 종류의 선박을 하나로 접목한 것으로 운송 효율이 높다.

삼성중공업은 2005년 러시아 소브콤플로트사로부터 세계 첫 양방향 쇄빙유조선 3척을 수주하며 국내 쇄빙상선 시장을 개척했다.

특히 이번에 수주한 쇄빙유조선은 영하 45도의 혹한에서 최대 1.4m 두께의 얼음을 깨고 시속 3.5노트로 항해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국내 조선소가 수주한 쇄빙상선 가운데 최고 사양인 빙등급 'Arc(아크) 7'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적재량에 따른 유조선의 10배가 넘는 가격인 1척당 1600억원대에 계약을 맺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수주를 포함해 올해 59억 달러의 수주실적을 기록했다"며 "현재 LNG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플랫폼 등의 수주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이달 중 추가 선박 수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mjkim@

제주 단독세대형 풀빌라 '더 바움' 분양

저금리 기조로 수익형 부동산 상품 공급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제주진흥개발의 'THE BAUM(더 바움)' 단독세대형 풀빌라가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해외 관광객 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이들을 겨냥한 호텔, 리조트 등의 수익형 상품이 활발히 분양됐으나 실사용 면적이 작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풀빌라는 330㎡(100평) 안팎의 대지 위에 4m×9m 크기의 풀장과 빌라를 짓고, 테마별 정원을 비롯해 바비큐장, 개별주차장 등을 제공한다.

계약자는 연 20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비행기 티켓 4매가 증정된다. 골프장, 요트장, 승마장, 면세점 등의 제휴 서비스가 제공된다.

1차분 18개 동만 분양하고 2·3차분 120개 동은 시행사가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02-3409-9313)

/박선옥기자 psok1802@

캥거루 밥 주고…코알라 안아줘요

글로벌 이코노미
/조선미기자 [illegible]

먹이를 주지 마시오.

호주 시드니 외곽에 자리한 페더데일 야생동물원에서는 이런 문구를 찾아볼 수 없다. 동물에게 손을 내밀어 먹이를 건넬 수 있는 것은 물론 품에 안을 수도 있다.

최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호주에서 야생동물 관광 산업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업계 내 경쟁이 치열하다. 정부의 인가를 받은 야생동물원만 90여 개로 특별한 전략 없이는 문을 닫기 십상이다. 동물원은 '캥거루 밥주기', '코알라 안아주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관광객을 사로잡느라 여념이 없다.

호주 야생동물 관광 인기··업계 다양한 '교감 마케팅' 눈길

호주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관광객의 70%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각종 야생동물을 보기 위해 호주를 찾는다. 지난해 약 35만 명이 페더데일을 방문했다. 이 덕분에 동물원의 연매출은 920만 호주달러(약 85억6000만 원)에 달했다.

페더데일 동물원의 운영자인 팀 스미스는 관광객 덕분에 매출이 높지만 운영비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좋은 먹이를 주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관리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설명이다. 페더데일 야생 동물원의 지난해 운영비는 650만 호주달러였다.

이 동물원에는 2000여 종의 동물이 있다. 사육사 등 관리 인력은 100여 명이다. 동물원의 마스코트인 코알라의 경우 보통 한 마리 당 사육사 두 명이 배정된다. 코알라의 연간 관리비는 10만 호주달러다.

동물원 측은 관리비가 엄청나지만 동물 한 마리 한 마리에 정성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희귀동물의 개체 수를 보호하고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살 곳을 마련해 주기 위해 동물원을 세웠다는 것이다.

마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잡아온 동물도 있다. 동물원의 터줏대감 '바나악어'가 그 주인공이다. 이 악어는 몸 길이 4.7m에 무게는 500kg에 이른다. 호주 북부의 예보러진 마을에서 포획돼 22년째 페더데일에서 살고 있다.

페더데일 동물원은 올해로 42주년을 맞았다. 스미스는 "야생동물과 사람이 교감하는 곳으로 페더데일이 호주 안팎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며 "동물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는 착한 동물원으로 계속 발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야후 '배시버그'에 당했다

서버 3대 침해 네티즌 불안 가중

미국 포털업체 야후가 '배시 버그 (Bash bug)'를 악용한 해커들의 공격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네티즌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야후는 자사 서버 3대가 침해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식 인정 했다.

야후는 사태를 파악하자마자 시스템 패치를 시작해 해커들이 야후 서버들을 원격으로 조정하는 권한은 얻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사용자 정보 유출은 없다는 이야기다.

지난달 24일 공개된 배시 버그를 악용한 공격이 대기업을 상대로 가해진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셸쇼크(Shellshock)라고도 불리는 배시 버그는 리눅스와 유닉스 시스템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드러난 보안 결함이다. 지난 4월 발견돼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하트블리드' 보다 더 널리 퍼져 있는데다가 해커들이 악용하기도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가표준기술원(NIST)은 그 심각성을 10점 만점에 10점으로 평가할 정도로 위험성이 [illegible]. /이국명기자 [illegible]

NBA 유타 백혈병 꼬마와 계약

미국프로농구(NBA) 유타 재즈가 6일(현지시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5세 꼬마와 하루짜리 계약을 맺었다. 유타는 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계약선수(FA)인 JP 깁슨과 1일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 조건은 비공개"라고 발표했다. 깁슨은 2012년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유타는 그에게 자체 연습경기 시 유니폼을 입고 벤치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번 계약은 소아암 관련 자선 단체의 소원성취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졌다. /AP 연합뉴스

런던·뉴욕·파리서 일하고 싶다

국가별 취업 순위 한국은 16위 그쳐

영국 런던이 전 세계 구직자들의 취업 희망 도시 순위 1위에 올랐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세계적인 컨설팅 전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189개국의 구직 희망자 20만 명을 대상으로 취업 관련 희망사항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뉴욕과 프랑스 파리가 2, 3위를 차지했다. 호주 시드니와 스페인 마드리드가 4위와 5위에 올랐으며 독일 베를린, 스페인 바르셀로나, 캐나다 토론토가 뒤를 이었다.

싱가포르(9위)는 아시아 도시로는 유일하게 10위 안에 포함됐다. 10위는 이탈리아 로마다.

국가별 취업 선호도에서는 미국이 조사 대상자의 42%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다. 영국(37%)과 캐나다(35%)가 뒤를 이었다. 4~6위는 독일, 스위스, 프랑스다.

아시아 지역 국가에서는 일본이 8위로 가장 높았다. 한국은 중국(12위)보다도 낮은 16위에 그쳤다.

한편 구직 희망자의 63.8%는 "굳이 모국이 아니더라도 국외에서 취업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특히 국외 취업 선호도는 젊은 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개발도상국 출신이거나 선진국 가운데 최근 경기가 침체된 국가 출신일수록 국외 취업 희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취업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희망자의 65%는 급여 등 금전적인 이유가 아닌 '본인과 가족의 인생 경험을 늘리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보스턴컨설팅 관계자는 "고용시장의 지리적 장벽이 낮아져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한 국가와 기업 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글로벌 인재를 채용할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은 각국 인재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국명기자

변정수의 뷰티케어

"우리 말과 추억쌓기!"… '한글 대축제' 주목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김영대)이 9일 한글날을 맞아 국립한글박물관(사진)을 개관한다. 이날 재단은 한글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글과 관련된 문화 콘텐츠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한글 문화축전 '한글 대축제'를 연다.

먼저 책을 통해서 느꼈던 감동을 무대 위에서 보다 입체적이고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2014 한글문학 극장'이 펼쳐진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비화를 다룬 이정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각색한 뮤지컬 '뿌리 깊은 나무'가 9일부터 공연된다. 한글문학의 대표작가인 이효석의 단편소설을 극화한 연극 '메밀꽃 필 무렵'도 23일부터 무대에 오른다. 또 현대 한글희곡의 명작 중 하나로 꼽히는 오태석의 '백마강 달밤에'는 국립중앙박물관 내 극장 용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박물관의 뮤지엄숍과 카페가 결합된 복합 문화공간 아름누리('아름다운 세상'을 뜻하는 순 우리말)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세종대왕이 참제한 14개의 한글 자음 중 '발음하기 가장 힘든 자음'인 ㅋ(키읔)과 ㅌ(티읕)이라는 점에서 기획된 ㅋ으로 시작하는 커피와 ㅌ으로 시작하는 티의 만남'에서는 솜사탕 아포카토와 티타임 세트 등 수준 높은 품질의 커피와 다양한 티를 맛볼 수 있다. 게다가 한글을 모티브로 한 상품 중 패키지 상품으로만 특별 구성된 '한글 꾸러미세트'가 판매되며 31일까지 SNS에 상품 구입 후기를 올린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이 전달된다.

이와 함께 아름누리를 방문하면 '하나뿐인 글, 한글'이라는 주제로 국내 대표 타이포그래피 작가들이 참여한 한글 전시회를 감상할 수 있다. 한글로 조형 실험을 진행한 잡지인 안심수의 '한글만다라'와 금누리의 '보고서 보고서'를 비롯해 한글의 조형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한재준의 '한글블록' 등이 전시된다. 국내 유일의 납활자 인쇄소인 출판도시 활판공방의 활판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재단은 박물관 개관을 기념해 훈민정음 영인본(해례 언해)을 발간해 각 200부씩 한정 판매할 계획이며, 훈민정음 '해설서'를 별도로 제작해 일반인들도 훈민정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국립한글박물관 개관 기념 행사 다채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풍성해서 즐거운 '한글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특별 이벤트 준비 한창

한화호텔앤드리조트(대표 홍원기)가 '한글날'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한다.

먼저 63스퀘어는 9일부터 12일까지 한글 이름 고객에게 BIG3 4 패키지를 50% 할인하는 행사를 실시한다. 또 63왁스뮤지엄에 있는 세종대왕 왁스인형과 함께 사진을 찍고 63빌딩 홈페이지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BIG 3 패키지를 받을 수 있다. 10월 매주 화요일에는 63컬처 케이스북과 63스퀘어 카카오스토리에서 '맞춤법 맞추기 대회'가 열린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9일부터 12일까지 한글 이름을 가진 본인에게는 패키지권 30% 할인을, 동반 3인에게는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영문 이름을 가진 해양 수조 생물의 한글 이름을 맞추는 '한글 이름을 맞춰라!' 이벤트도 이어진다.

아울러 한화 아쿠아플라넷 일산에서는 9일 오션과 모두 두 차례 '수중 우리말 퀴즈쇼'가 펼쳐진다. 메인 수조 안에서 아쿠아리스트가 순 우리말 단어의 초성이 적힌 현수막을 제시하면 정답을 맞추면 된다. 정답을 맞춘 고객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한화 아쿠아플라넷 일산·제주·여수와 63씨월드는 애니팡을 히트시킨 선데이토즈와 제휴를 맺고 물고기 육성 게임 '아쿠아스토리'와 제휴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황재용기자

꽃청춘 위한 도심 힐링 프로젝트

특급호텔, 젊은 세대 위한 각종 패키지 선봬

최근 호텔업계가 젊은 세대의 감성에 맞춰 이색적인 즐길거리가 가득한 패키지들을 선보이고 있다. 황금연휴 동안 멀리 떠나지 못하는 청춘을 위한 도심 속 이색 힐링법을 소개한다.

먼저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은 청춘들을 위한 '꽃청춘(Bloom your life) 패키지'를 준비했다. 호텔에서의 힐링은 물론 청춘들의 일상까지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이번 패키지는 A, B 두 타입으로 구성돼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은 캠핑족이 늘어나는 대세에 맞춰 한강에서 즐기는 '이브닝 피크닉 패키지'를, 메이필드 호텔은 자연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레드 인 메이필드(Red In Mayfield) 패키지'를 마련했다.

또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에서는 남산의 가을을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가을 피크닉-트레킹 패키지'를 만날 수 있다.

이외도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는 꽃보다 아름다운 청춘 남녀들을 위한 '커플 패키지' 두 종을 선보이며 쉐라톤 인천은 국내 최대 규모의 뮤직 페스티벌을 감상할 수 있는 '월캐 2014 패키지'로 청춘들을 사로잡는다.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은 색다른 하루를 보내고 싶은 청춘들을 위해 '나잇 오울(Night Owl) 패키지'를, 그랜드 힐튼 호텔은 여성들만의 시간을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가을 레이디즈 패키지'를 각각 준비했다.

이와 함께 롯데시티호텔 마포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레이디스 나이트 패키지'를 통해 신나는 가을을 즐길 수 있다. 리츠칼튼 서울은 요가 또는 필라테스 클래스에 참여할 수 있는 '어반 겟어웨이(Urban Getaway) 패키지'로 힐링을 할 수 있다. /황재용기자

"연휴 후에도 여행 즐기세요"

금요일 밤 떠나는 '도깨비여행' — 일본·대만 인기

이번 황금연휴가 끝나면 연말까지 연휴가 없어 여행을 떠나고 싶어도 자유롭게 여행을 가지 못한다. 이럴 때는 금요일 밤에 가까운 곳으로 떠났다가 월요일에 돌아오는 '도깨비여행'이 제격이다.

도깨비여행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은 일본 온천여행이다. 위치적으로 가깝고 온천이 일본 대표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도쿄 도심으로부터 1시간 거리에 있는 하코네 온천이 대표적이며 온천은 도쿄 시내를 둘러본 뒤 방문하기에 좋다. 또 먹으면 7년이 젊어진다는 속설을 가진 '쿠로 타마고'라는 검은 계란은 하코네에서만 즐길 수 있는 별미 중 하나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라면 대만의 타이베이가 적당하다. 미식으로 심신을 달래는 식도락 여행지인 타이베이에는 망고빙수와 샤오롱바오 등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하다. 또 인천에서 타이베이로 가는 직항을 탈 경우 편도 3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어 도깨비여행을 즐기기에 최적의 위치를 자랑한다.

도깨비여행은 자유여행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온라인 여행사 등의 얼리버드 할인 프로모션 등을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황재용기자

라즈베리 향 담은 보드카 '스베드카' 출시

8일 오후 10시부터 클럽 '신드롬'에서 론칭 파티

롯데주류(대표 이재혁 www.lotteliquor.com)가 7일부터 스웨덴産 프리미엄 보드카 '스베드카 라즈베리'를 국내에 출시하고 이를 기념한 론칭 파티를 통해 본격적인 제품 알리기에 나선다.

이번에 출시한 '스베드카 라즈베리'는 롯데주류가 지난해 4월부터 판매한 스웨덴산 프리미엄 보드카 브랜드 '스베드카'의 4번째 제품이다. 750㎖ 용량에 알코올 도수는 35도이며 라즈베리향을 첨가해 신선한 맛과 향을 살린 과일향 첨가 보드카이다.

롯데주류 측은 2008년부터 연평균 40%씩 성장해 작년에는 470억원대로 추정되는 국내 보드카 시장의 지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에 출시된 제품들에 이어 '스베드카 라즈베리'를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 제품 출시에 맞춰 보드카가 클럽에서 칵테일 재료로 많이 애용되고, 주 소비층이 20~30대인 점을 감안해 8일 오후 10시부터 강남에 있는 클럽 '신드롬'에서 '스베드카 라즈베리 론칭 파티'를 진행한다.

론칭 파티에서는 개그맨 박명수와 가수 김원준의 디제잉 스승으로 유명한 DJ 52를 초청해 다양한 클럽음악을 선보인다. 파티 참석자들에게는 선착순으로 '스베드카 라즈베리'의 로고 이미지를 넣은 모자(스냅백)를 비롯해 티셔츠, 야광봉 등 다양한 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파티 입장 권은 8일 오후 10시부터 클럽 '신드롬'에서 현장 구매만 가능하다. 파티 참석 전 스베드카 페이스북(www.facebook.com/svedkakorea)에 방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스베드카 라즈베리' 시음권도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지난해 스베드카 출시 후 지금까지 론칭 행사 등 큰 이벤트 없이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통해 스베드카를 알리는 마케팅 활동을 펼쳐왔다"며 "앞으로는 '스베드카'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SNS 등 온라인과 클럽 이벤트 등 오프라인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베드카'는 스미노프, 앱솔루트에 이어 전 세계 판매 3위를 기록 중인 스웨덴산 프리미엄 보드카 브랜드로써 5회 증류를 통해 잡미와 잡향을 줄였고 이러한 우수한 품질로 2010년, 2011년, 2014년에는 국제주류품평회(IWSC)에 입상하는 등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롯데주류가 지난해부터 ▲기본형인 '스베드카 보드카' ▲레몬 향을 넣어 '스베드카 시트론' ▲오렌지향을 넣은 '스베드카 클레멘타인' 등을 판매중이며, 이번 '스베드카 라즈베리' 론칭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스베드카 제품은 총 4개 제품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영일기자 sms@metroseoul.co.kr

당 줄이기 캠페인 한국야쿠르트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당 줄이기 캠페인' 사진촬영을 열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한국야쿠르트의 당줄이기 제품군은 설탕을 전혀 넣지 않고 올리고당 등 천연 재료를 사용했다. 기존 제품 대비 최대 50%이상 당류 함량을 낮추었으며, 식후 건강한 디저트용뿐만 아니라 바쁜 아침 대용식으로도 적합하다. /손진영기자

강강술래 "환절기 피부건강 지키세요"

엠플러스케어 게르마늄 비누 증정
캠핑시즌 나들이세트 40% 파격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가을 환절기를 맞아 피부건강에 적색 경보가 켜진 고객들을 위해 여드름과 아토피성 피부 등에 뛰어난 효능을 지닌 엠플러스케어 게르마늄 비누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화학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 천연 미네랄과 고순도 게르마늄을 나노바이오 공법으로 완성해 피부세포 보호와 트러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고 강력한 원적외선 음이온 및 산소가 발생, 피부 노폐물 제거와 중금속 배출 효과가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www.sullae.com) 이벤트에 신청글을 올리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게르마늄(Germanium) 비누 1세트(9만9000원)를 증정한다.

가을 캠핑을 떠나는 고객을 위해 이달 말까지 온라인쇼핑몰(sullae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강강양념구이(520g)와 한우불고기(500g)·한돈양념(500g), 돼지양념(500g)로 구성된 나들이세트를 40% 할인된 6만원에 판매한다.

또 100% 국내산 돼지 등심과 자연치즈를 사용한 통등심돈가스(3세트 2.16kg·3만1500원)와 모짜렐라돈가스(3세트 2.16kg, 3만7800원),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50g 6봉·2만5800원)도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기력보충과 면역력 증진에 좋은 100% 한우사골곰탕 소용량 선물세트(350㎖ 5팩·10인분)는 2만2500원, 대용량 선물세트(800㎖ 5팩·15인분)는 3만8800원에 3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 /정영일기자

입맛 사로잡는 외국 음식들

최근 외국 전문점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대표적인 양식, 중식, 일식은 물론이고 베트남식에 인도식, 터키식 등이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외국음식들이 한국 음식 못지않게 보편화되고 마니아 층을 형성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 일본 라멘

본래 염도가 높고 돼지 뼈를 장시간 우려 진한 육수가 특징인 일본 라멘은 '짜고 느끼하다'는 인식으로 국내 도입 초반에는 꺼리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는 라멘을 앞다투어 선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식 라멘 전문점 '잇푸도'의 경우 주문 때 취향에 따라 국물의 염도와 면의 익힘 정도, 숙주의 양, 각종 토핑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문방식을 개선해 고른 연령층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 베트남 '쌀국수와 월남쌈'

베트남 대표 전통 음식 중 하나인 쌀국수 처음에는 계피, 팔각 고수 등이 들어간 특유의 육수로 낯설게만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엔 낮은 칼로리와 담백한 맛을 무기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외국음식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월남쌈 역시 쌀국수 못지않게 대중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웰빙 열풍이 불면서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이 즐기는 음식이 됐다.

◆ 인도 커리(Curry)

인도 전통 빵 '난'과 함께 현지 본토의 맛을 그대로 살린 커리를 판매하는 인도커리 전문점이 속속 등장하며 한 끼 식사메뉴로써 보편화 된 상태이다.

◆ 터키 케밥(Kebab)

터키 요리의 대명사 격인 케밥은 종류도 다양하지만 특히 '쉬시 케밥'과 '도네르 케밥' 등이 잘 알려진 메뉴다. 닭고기나 양고기가 주된 속 재료로 듬뿍 들어가 한 끼 식사용으로도 부족함이 없어 직장인 등에게 사랑 받는 외국 음식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정영일기자 sms@

일본식 라멘전문점 '잇푸도' 한 매장 모습 /잇푸도 제공

"OOO 신발 신어봤니?"

시완 슈즈·엑소 스니커즈 등 스타 이름 제품 눈길

패션업계가 '시완 슈즈' '엑소 스니커즈'와 같이 스타의 이름을 제품에 활용하는 '연예인 네이밍 마케팅'에 주목하고 있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신제품 홍수 속에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것을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신제품이라도 유명 스타의 이름이 붙이면 소비자가 기억하기 쉽고 제품 호감도도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웃도어 브랜드 엠리밋은 최근 전속 모델인 임시완을 모티브로 한 'CJ(시완)슈즈'를 내놨다.

이 제품은 임시완 특유의 맑고 깨끗한 느낌을 담아 모던하고 세련되게 디자인했다. 트레킹이나 가벼운 산행 등 아웃도어 활동에도 적합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스타일리시하게 신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코오롱스포츠는 올 초 아이돌그룹 엑소(사진)의 이름을 딴 스니커즈 '무브-엑소(MOVE-XO)'를 출시했다. 10~20대 젊은층을 공략하기 위해 엑소를 모델로 발탁하면서 이름을 그대로 제품에 적용, '엑소 스니커즈'로 불리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단순히 연예인 이름만 활용하는 것을 넘어 스타가 직접 제품 제작에 참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세정의 캐주얼브랜드 헤리토리는 전속 모델인 로이킴과 손잡고 '헤리토리 X 로이킴' 협업 제품을 선보였다. 티셔츠에는 로이킴이 직접 그린 그림이 삽입돼 있으며, 평소 모던함을 선호하는 로이킴의 취향이 잘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지원기자

이화의료원, '해외 봉사활동 사진전'

이화여대 의료원(원장 이순남)이 오는 17일까지 이대목동병원 1층 로비에서 병원 개원 21주년을 기념한 '해외 의료 봉사활동 사진전'을 연다.

의료원은 지난 2011~2014년 진행한 몽골 의료 봉사활동과 2014년 캄보디아에서 봉사를 펼쳤던 순간을 담은 작품들을 일반인에게 선보인다.

특히 사진전에 전시된 모든 작품들은 구입이 가능하며 판매 수익금 전액은 2015년 의료원의 해외 의료 봉사활동에 사용된다.

이화 해외 의료 봉사단은 1989년 네팔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2007년 이후에는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해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본교와 동창회의 지원을 받아 활동 영역과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hsj@

이순남 이화여대 의료원장(왼쪽에서 여덟 번째)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이 사진전에 앞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이화여대 의료원 제공

"화장품, 동물실험 필요 없어요"

러쉬, 11일 '제2회 동물실험반대 엑스포' '드레이즈 테스트' 실태 밝혀…무료 입장

영국 프레쉬 핸드메이드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LUSH)는 오는 11일(토) 능동 어린이회관 서편 잔디광장에서 '제2회 동물실험반대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러쉬는 사람과 동물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맞서 싸우는 캠페인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진정성을 가지고 화장품 동물실험반대 캠페인에 앞장서온 러쉬는 이번 행사를 통해 화장품 동물실험의 실태와 폐해를 바로 알리고, 불필요한 동물실험 없이도 윤리 소비가 가능하다는 점을 전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체실험 활성화를 위한 해당 연구 기관과 단체의 연구비용 마련 등 국내 화장품 동물실험이 근절될 때까지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러쉬 관계자는 "명실공히 뷰티 강국인 한국은 큰 규모에 비해 화장품 동물실험에 대한 그 어떤 규제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미 오랜 시간 안전성이 검증된 원료로 제품을 만들고 있고 대체실험 방법이 많이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악행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쉬는 이번 엑스포에서 여성들의 아름다운 눈화장을 위해 시행되는 '드레이즈 테스트(The Draize Test)'의 정의와 실제 폐해 등을 낱낱이 파헤칠 예정이다. 드레이즈 테스트는 화장품이 눈에 들어갔을 때 점막을 자극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토끼 등의 눈 점막에 몇 시간 간격으로 화학물질을 주입하는 것으로 마스카라 등을 생산할 때 실시된다.

이밖에 토끼 복장을 드레스 코드로 한 베스트 드레서를 선정하고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화장품을 활용한 메이크업 시연, 고릴라 저글 쇼 케이스, 불필요한 포장을 반대하는 '고 네이키드(Go Naked)' 캠페인, 동물실험반대 서명 운동, 대체실험 기금 마련을 위한 기부 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오는 11월 14일 런던에서 열리는 '2014 러쉬 프라이즈'에 국내 최초 관정단으로 참여하는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의 서보라미 팀장이 직접 화장품 동물실험의 실태는 물론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 강령에 대한 이야기할 예정이다.

러쉬는 1995년 창립 단계부터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물실험을 가진 원료조차 거래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러쉬의 모든 제품에는 'FAT(Fighting Animal Testing)' 라벨이 부착돼 있고, 제품의 71%가 비건(Vegan·모든 동물성을 피하는)이다. 이는 동물에서 채취되는 비즈 왁스(벌집의 원료인 밀랍), 양털에서 얻는 모발한 라놀린 꿀, 유정란 등 2차적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음이 증명되는 복잡하고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러쉬 측은 설명했다.

러쉬 관계자는 "지금부터라도 동물실험을 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등 윤리적인 소비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동물실험 근절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쉬의 '제2회 동물실험반대 엑스포'는 동물을 사랑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러쉬코리아 웹사이트(www.lush.co.kr)와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lush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1644-2357

/이지현기자

'주부' 부담 덜어주는 '간편 제품' 눈길

조리도구·반찬 등 출시

유통업계에서 건강하고 푸짐한 식탁을 차려줄 '간편' 제품을 선보이며 주부들의 고민 해결에 나섰다.

락앤락은 최근 냉동보관과 전자레인지 해동, 간편조리까지 가능한 기능성 용기 '오븐글라스 햇쌀밥 용기 & 계란찜 용기'를 출시했다.

햇쌀밥 용기에는 밥이나 반찬 등을 넣어 냉장·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바로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된다. 또 계란찜 용기는 전자레인지나 오븐을 사용해 기호에 따른 간편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넉넉한 용량으로 출시됐다.

두 제품 모두 용제는 냉동실부터 오븐까지 사용이 가능한 프리미엄 내열유리 소재를 사용했고 뚜껑은 내열성이 높은 실리콘 소재로 만들어져 전자레인지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락앤락 계란찜용기

또한 엔터팩은 전자레인지용 압력 밥솥을 선보였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조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불을 사용하지 않아 조리 상태를 일일이 체크할 필요 없어 편리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돼지수육·불고기·갈치조림 등과 같은 고기·생선 요리와 각종 나물까지 다양한 요리를 손쉽게 할 수 있다.

대형마트도 반찬 요리용 소스 등을 출시해 간편식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마트가 최근 론칭한 반찬 양념라인 '피코크 찬(饌)'은 장조림과 멸치볶음 등 포장 반찬류, 된장찌개와 해물탕을 위한 요리용 소스, 매실 고추장 등 양념장 등으로 구성됐다. /김수정기자

"각박한 세상 음악으로 위로해 주고 파"

정규 2집 '홈'으로 돌아온 가수 로이킴

가수 로이킴(22)은 지난 2012년 엠넷 '슈퍼스타K 4'의 우승을 거머쥐며 데뷔와 동시에 스타가 됐다. 자작곡으로 채워진 데뷔 앨범 발매부터 드라마 OST, 라디오 DJ 등 여러 분야에서 정신없이 활동하던 그는 지난해 홀연 미국으로 떠났다. 가수가 되기 전 그는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경영학과 학생이었다. 학교생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음악 만드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 집으로 돌아오다

그가 고향 한국 땅으로 돌아오며 들고 온 정규 2집 제목은 '홈'이다. 긴 유학 생활에 집이 그리웠을까. 앨범 이름과 동명의 타이틀곡 '홈'은 가을에 어울리는 잔잔한 느낌의 포크송으로 사랑 이야기가 아닌 듣는 이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가사가 특징이다.

"사실 '홈'은 제 스스로 위로가 필요할 때 쓴 노래예요. 올해 초 겨울이 지나고 봄에 학교를 다니며 쓴 곡이죠. 학교 수업 끝나고 남는 자투리 시간엔 음악 밖에 안 했어요. '힘들 때면 집으로 오면 돼'라고 말하는 곡이죠. 위안을 기대하며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게 정말 친한 친구 아니면 가족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부 털어놓기엔 각자만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서로를 위로해주기에도 각박한 이 세상에서 음악으로라도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데뷔 앨범에서 봄을 노래했던 그는 이번에 가을을 노래한다. 창작자가 느끼는 봄과 가을의 차이는 무엇일까.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비슷해요. 꽃피는 봄이 설레는 느낌이라면 가을은 쓸쓸하지면서 마음도 시려지는 거죠. 하지만 '홈'은 그걸 생각하면서 쓴 건 아니에요. 미국에 있을 때 계속 노래 작업을 해왔고 이것들이 쌓이면서 이제 앨범을 내게도 되겠다 싶어 가을에 맞는 곡들을 추려서 나오게 된 셈이죠."

◆ 욕심쟁이 싱어송라이터

데뷔 초 그의 이름 앞엔 '엄친아(엄마 친구 아들)'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무엇하나 빠지는 것 없이 잘난 사람을 뜻하는 '엄친아'라는 별명은 그에게 안성맞춤이었다.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라는 타이틀에 미국 유명대학 재학생이라는 사실까지 그 별명만큼 잘 어울리는 것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엄친아'보다 '싱어송라이터'라고 불리길 바랐다. 정규 앨범 두 장을 모두 자작곡으로 채웠다는 사실만보더라도 음악에 대한 그의 열정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홈' 발표에 앞서 꽤 독특한 행보를 보였다. 케이블채널 tvN의 예능프로그램 '오늘부터 출근'에 출연한 것이다.

"만약 제가 음악을 안 했더라면 경영학과 학생이니까 이미 졸업 후에 회사원이 됐겠죠? 물론 취업이 굉장히 어렵지만 말에요(웃음). 제가 만일 100년을 살 수 있다면 그 안에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싶어요. 회사원도 그 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가수의 길을 걷기 시작하며 이뤄질 수 없는 꿈이 됐는데, '오늘부터 출근'을 통해 경험하게 됐어요. 주위 친구들이나 형들이 회사에서 일던 하는 걸 보면서 회사원 생활은 어떨까 궁금하던 차에 좋은 기회가 온 거죠."

잠깐이지만 회사 생활을 경험했던 그는 "전공을 살리는 일은 좀 아닌 것 같다"며 농담 섞인 소감을 말했다.

◆ 든든한 친구들

그의 곁엔 든든한 친구들이 있다. '슈퍼스타K 4'를 함께 거친 정준영·에디킴(김정환) 등이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큼 그에게 행복한 순간은 없다.

"술은 잘 못 마셔요. 사실 남자들이 술 마시는 게 싫어요(웃음). 농담이고 술은 마시면 얼굴부터 몸까지 다 빨개져서요. 또 진지한 얘기를 하기 위해 굳이 술 한 번 마셔야 하는 이런 분위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카페에서 만나서 하루 종일 앉아 수다 떠는 게 좋아요."

음악 이야기만 나눌 수 있다면 그에게 친구란 국경도 나이도 중요치 않아 보였다. 그는 이번 앨범에서 '천재 기타리스트' 소년 정성하와 함께 작업했다.

"성하는 제이슨 므라즈 내한 공연에서 처음 만났어요. 므라즈가 내한할 때마다 성하와 함께 무대에 올랐는데 성하가 또 제 음악을 좋아해 '같이 해보자' 해서 인연이 시작됐죠. 이번에 노래 만들고 나서 성하에게 혹시 기타 연주를 해 줄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한걸음에 청주에서 달려왔어요."

엄친아, 경영학과 학생, 가수, 누군가의 친구. 그가 바라는 스스로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는 "음악만이 제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김지민기자
metroseoul.co.kr

타이틀곡 스스로 위로 필요해 쓴 노래

학교 수업 끝나면 오로지 음악만 몰두

MC몽 돌아온다

이선희·백지영·허각·효린 등 선후배 피처링 지원 사격

가수 MC몽(사진)이 컴백 초읽기에 들어갔다.

소속사 웰메이드예당 측에 따르면 MC몽은 다음달 3일에 새 앨범을 발표한다.

이번 앨범은 2009년 정규 5집 이후 5년 만에 발표하는 것으로 이선희·개리·백지영·허각·효린·에일리 등 쟁쟁한 선후배 가수들이 피처링 지원 사격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한 관계자는 "5년 만에 발표하는 앨범이라 많은 동료가수들의 응원이 있었다"며 "현재 약 80% 정도 작업이 진행된 상태로 MC몽의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 당초 계획된 발표일보다 늦어졌다"고 전했다.

한편 MC몽은 지난 2010년 병역기피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이후 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기피 혐의에 대해서는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김지민기자

엠넷 '슈퍼스타K 6' 생방송 진출 11개 팀. CJ E&M

'슈퍼스타K 6' 구설수 딛고 생방송 시작

화제만큼 논란도 뒤따라…임도혁 자격 '이상 무'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 6'의 김무현 PD와 김기웅 국장이 참가자 임도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 국장은 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M 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작진이 편집을 잘 못해서 시청자들에게 혼나고 질타도 받을 순 있다. 하지만 참가자들에겐 그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번 시즌 생방송에 진출한 참가자 임도혁이 예선 과정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이 처음"이라고 말한 것이 거짓임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제작진의 해명에 따르면 임도혁은 타 오디션 프로그램에선 주목받지 못한 채 탈락한 반면 '슈퍼스타K 6'에선 예선전부터 화제를 모으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임도혁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실력도 인정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이 처음'이라는 취지에서 선택한 단어가 편집에 의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설명이다.

이날 김무현 PD는 임도혁의 또 다른 논란인 내레이터사 가이드 보컬 이력에 대해 "그 일을 하고 5만원에서 8만원 정도 받았다고 들었다. 주말에 몇 만원 받고 하는 아르바이트에 가깝다. 오히려 콘서트 등의 활동을 통해서 번 돈보다 아르바이트 수익이 더 컸다. 임도혁 군을 프로 뮤지션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그는 아마추어고 학생"이라며 참가 자격 논란을 일축했다.

김 국장은 "프로에 가까운 친구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기 위해선 대단한 결심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에서 노래 잘 한다고 인정받아도 결국엔 결혼식 축가 아르바이트나 가수 뒤에서 밴드 싱크·백업 보컬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이 그렇게 돈을 벌었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디션에 도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노래로만 승부하는 것에 집중해주셨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그는 이어 "(임도혁처럼) 다른 오디션에 나왔다가 '슈퍼스타K'에 또 나온 친구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라 칭찬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슈퍼스타K 6'는 참가자의 짧은 발언도 논란으로 이어질 만큼 화제의 프로그램으로 떠올랐다. 특히 톱11에 이름을 올린 곽진언·김필·임도혁이 예선 무대에서 보였던 '당신만이'는 방송 직후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 반나절 이상 머무는 것은 물론 음원으로 발매되며 큰 인기를 모으기도 했다.

한편 이번 시즌 톱11에 진출한 곽진언·김필·버스터리드·브라이언박·송유빈·여우별밴드·이준희·이해나·임도혁·장우람·미카는 10일 오후 11시에 첫 번째 생방송 무대를 꾸민다.

/서지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레드벨벳 두달 만에 활동 재개

SM 선배 걸그룹 S.E.S. 히트곡 재해석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신인 4인조 걸그룹 레드벨벳(사진)이 신곡 '비 내추럴'을 발표한다.

SM 측에 따르면 레드벨벳은 오는 13일 정오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두 번째 디지털 싱글 '비 내추럴'을 발표하고 활동을 이어간다.

지난 8월 '행복(Happiness)'으로 데뷔한 레드벨벳은 아프리칸 사운드의 경쾌한 댄스곡으로 신인다운 상큼한 무대를 선보인데 이어 올 가을엔 '비 내추럴'로 성숙하고 고혹적인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특히 '비 내추럴'은 SM의 1세대 걸그룹 S.E.S.의 히트곡을 재해석한 것으로 멤버 슬기와 아이린이 데뷔 전 'SM 루키스'로 활동했던 당시 선보인 퍼포먼스에 레드벨벳의 색깔을 입혀 한 단계 발전한 무대를 꾸밀 계획이다.

/김지민기자

거미 가을밤 로맨틱 소극장 콘서트

10~11일 일지아트홀 무대

가수 거미(사진)가 10~11일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소극장 콘서트를 개최한다.

거미는 이번 공연에서 가을밤과 어울리는 아늑하고 로맨틱한 분위기의 무대로 관객들과 가까이에서 교감을 나눌 예정이다. '그대 돌아오면'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등 거미의 대표 발라드부터 대중에게 사랑받았던 OST, 올 여름 발표한 미니앨범 수록곡 등 거미만의 감성을 담은 다양한 무대를 선사한다. 또 거미가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반전 매력을 담은 메들리 무대와 깜짝 게스트 무대까지 예정돼 있다.

거미는 공연을 앞두고 7일 오전 공식 페이스북에 "밴드와 함께 공연 연습 중! 금요일에 만나요!"라는 글과 함께 3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밴드와 함께 연습 중인 거미의 모습이 담겨 있다. 마치 공연장에 온 듯 연습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으로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유순호기자 sum@

그래도
살만한
인생
tvN 8주년 특별기획
미생
임시완 | 이성민 | 강소라 | 강하늘 | 김대명 | 변요한 | 기획 tvN 제작 N°3 NUMBERTHREE PICTURES
10월 17일[금] 저녁 8시 40분 tvN 첫방송

김제동 여섯 번째 토크콘서트

방송인 김제동이 오는 12월 김제동 토크콘서트 노브레이크 시즌6 를 연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12월 4일부터 21일까지 삼성동 백암아트홀에서 진행된다. 김제동은 2009년 첫 공연을 시작해 올해 초까지 197회 동안 총 21만 3400명의 관객과 만났다.

매 시즌 개성 있는 무대를 선보이며 자신만의 콘서트 브랜드를 만들어온 김제동은 이번 여섯 번째 시즌 공연에서 관객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김제동의 토크콘서트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를 묶어낸 버라이어티 쇼다. 소소한 일상부터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까지 소재를 한정하지 않는다.

특히 음악과 영상을 활용한 구성,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는 열린 소통으로 김제동의 토크콘서트는 지난 6년간 매진을 이어 왔다.

김제동은 시즌6에 앞서 "토크의 끝장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김제동 토크콘서트 노브레이크 시즌6'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와 예스24에서 오는 15일부터 가능하다.

/권효원기자 [illegible]

2NE1 美 빌보드 월드디지털송 1위

3년 3개월 된 '내가 제일 잘나가' 차트 역주행

그룹 2NE1의 '내가 제일 잘나가'가 미국 빌보드 월드디지털송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며 스테디셀러의 면모를 과시했다.

빌보드 온라인은 6일(현지시간) '내가 제일 잘나가'가 큰 판매량으로 월드디지털송차트에서 '들에 올랐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소식을 전했다. 2NE1은 이 차트에 머무른지 84주만에 정상에 오른 것으로 '역주행'의 위력을 선보이고 있다.

빌보드는 "2NE1의 노래 중 가장 높은 주간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싸이를 제외한 K팝 가수와 곡으로는 처음으로 이번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이라고 전했다.

'내가 제일 잘나가'는 지난 8월부터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태블릿 '서페이스 프로3(SURFACE PRO3)'의 광고 배경음악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번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닐슨 사운드스캔에 따르면 '내가 제일 잘나가'는 지난주 6000카피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빌보드는 "2NE1 팬들은 유튜브와 라디오를 통해 2011년 6월 발매된 이번 K팝 트랙(내가 제일 잘 나가)에 열광하고 있다. 공식 뮤직비디오는 1억뷰를 돌파했다"고 전했다.

6일 유튜브에서 1억뷰를 돌파한 '내가 제일 잘 나가'의 뮤직비디오는 올해 5월 2NE1의 데뷔 5주년을 맞아 빌보드가 게재한 '2NE1의 꼭 봐야 할 뮤직비디오 톱5' 중에서 당당히 1위에 오르면서 작품성을 안정받기도 했다.

2NE1은 또한 지난 3월 발표한 정규 2집 '크러시(CRUSH)'로 K팝 앨범 중 미국에서 가장 높은 첫 주 판매량을 기록했다. 이 앨범으로 빌보드 앨범차트에서 61위를 기록하며 K팝 음반 사상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월드투어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을 통해 전 세계 팬들과 만나고 있는 2NE1은 17일 마카오에서 투어를 이어가며 19일과 25일 베이징과 대만에서 열리는 YG패밀리 콘서트에도 참여한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닉쿤 中 복싱 리얼리티 프로 출연

'브레이브 하트' 매니저 역할

2PM 닉쿤이 중국 복싱 프로그램 '브레이브 하트'에서 매니저로 변신했다.

닉쿤은 4일 첫 방송된 중국 베이징 위성 TV(BTV) 제작 복싱 리얼리티 프로그램 '브레이브 하트'에 출연해 복서들의 매니저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중국 최초 복싱 서바이벌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브레이브 하트'는 전 세계 2만 명의 복서들 중 선발된 선수들과 닉쿤을 포함한 중국 대표 배우 장우, 대만 훈남 배우 고이상, 유명 액션 여자 배우 장란상 등 4명을 매니저로 초청해 첫 회부터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첫 방송에서 닉쿤은 앞으로 함께 할 선수들과 만나 첫 대결을 앞두고 연습을 시작했다. 평소 훈훈한 미소의 닉쿤은 '짐승돌'에 걸맞는 카리스마로 선수들을 독려하는가 하면, 함께 복싱 실전 연습을 하며 진지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촬영 현장에서 닉쿤은 자신의 팀 선수들에게 특별히 준비한 복싱 전문 운동화를 선물하는 등 따뜻한 배려로 눈길을 모았다.

'브레이브 하트'는 매주 월요일 오후 9시 BTV와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 요오쿠 투도우에서 동시 방영된다.

/유순호기자

윤하 이별노래 완결판 공개

'내 마음이 뭐가 돼' 발표

가수 윤하가 이별 노래의 완결판 '내 마음이 뭐가 돼'를 발표했다.

7일 발표한 '내 마음이 뭐가 돼'는 넬의 김종완이 작사·작곡·편곡해 윤하의 목소리 색깔에 최적화한 이별 노래라고 소속사는 설명했다. 김종완은 곡 작업에 앞서 윤하를 만나 살아오면서 느낀 만남과 이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나누기도 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 곡은 김종완이 단일 곡으로는 최장 시간 공을 들여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과 이별에 관한 이야기를 과거와 현재, 미래의 세 단계로 나눠 '대화체'로 풀어내 한 편의 짧은 영화를 보는 듯한 감성을 자극시킨다. 이러한 구성은 사운드와도 조화를 이룬다.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소리를 최대한 배제하고 자연스럽 속에 절제된 리듬감을 중심으로 음악이 흐르듯 펼쳐진다.

곡 발표 전 소속사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윤하가 그동안 불렀던 이별 노래의 제목만을 나열해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했다.

소속사는 "윤하는 그 동안 수많은 이별 곡으로 큰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에 선보이게 될 '내 마음이 뭐가 돼'는 가사에 집중해 줬으면 한다. 공감 가는 가사와 윤하의 감성 보컬에 어우러지며 마치 '나를 위한 이별 노래' 같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순호기자

/씨네그루 다우기술

사랑의 본질 그린 로맨스

아날로그 감성·공감가는 이야기

film review

/조성준 기자 when@metroseoul.co.kr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영민(조정석)과 미영(신민아)은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연애 4년차 커플이다. 화사하게 핀 벚꽃나무 아래에서 프러포즈를 하면서도 티격태격 싸우던 두 사람은 마침내 결혼에 골인해 달콤한 신혼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뿐. 연애할 때 서로를 괴롭히던 오해와 갈등은 결혼 뒤에도 이들 부부를 계속해서 따라다닌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는 오랜만에 만나는 한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다. 1990년 이명세 감독이 연출하고 박중훈·고 최진실 주연으로 개봉해 서울에서만 약 20만 명의 관객을 모은 동명 영화를 리메이크했다. 조정석·신민아가 주연을 맡고 '효자동 이발사'의 임찬상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완성된 원작과 닮은 듯 다른 21세기판 신혼부부의 로맨스다.

영화는 원작처럼 에피소드 식으로 구성돼 있다. 영화의 막을 여는 '집들이'와 '잔소리'는 결혼 이후에도 티격태격하지만 금세 화해하는 신혼부부의 행복한 일상을 담았다. 이어지는 '음란마귀'와 '첫사랑'은 이들 부부에게 찾아오는 갈등과 오해를 그린다.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랑해 미영'은 갈등과 오해를 극복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한다.

신혼부부를 주인공으로 내세웠지만 '나의 사랑 나의 신부'는 결혼의 현실적인 부분을 그리는데 관심이 없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흔히 겪게 되는 혼수와 예물 문제, 그리고 결혼 이후 마주하게 되는 고부 갈등 같은 이야기들이 영화에 등장하지 않는 이유다. 대신 영화는 '결혼은 또 다른 연애의 시작이다'라는 홍보 문구처럼 결혼 이후에도 끊임없이 겪게 되는 남녀 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춘다.

작은 오해와 서운함이 쌓이면서 다투게 되는 영민과 미영의 모습은 연애를 해본 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이야기일 것이다. 실제 부부 같은 신민아·조정석의 연기 호흡이 이를 보니 더 공감가게 만든다. 영화를 한층 더 따뜻하게 감싸 안는 삼청동과 성북동의 고즈넉한 풍경, 그리고 아날로그 감성의 소품들도 인상적이다.

사람들은 첫 만남의 설렘과 두근거림이 곧 사랑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영화는 그 설렘과 두근거림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또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끊임없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결혼을 일종의 가치 교환으로 여기는 지금 '나의 사랑 나의 신부'는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로 느껴질지 모른다. 그러나 사랑의 본질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로맨틱 코미디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다하고 있다. 15세 이상 관람가. 10월8일 개봉.

김태용 감독

최우식

'거인' BIFF 화제작 떠올라

7회 상영 모두 매진 내달 정식 개봉

최우식 주연의 영화 '거인'이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BIFF)에서 전회 매진 행렬을 이어가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거인'은 성장통보다 인생의 고통을 먼저 배운 17세 소년 영재(최우식)의 뜨거운 눈물을 담은 영화. 최연소 칸영화제 진출 기록을 세운 28세 김태용 감독의 작품으로 올해 영화제 '한국영화의 오늘-비전' 부문에 초청됐다.

'거인'은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7회 상영 모두 매진되며 영화제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지난 5일 첫 상영에는 김태용 감독과 배우 최우식, 이민아·장유상·박주희·강신철 등이 참석해 관객들과 만났다. 관객들은 끊이지 않는 박수로 감독과 배우들을 반겼다.

최우식은 "그 동안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장난기 많은 역할을 맡았지만 '거인'의 영재는 정반대의 캐릭터였기에 시나리오를 읽은 뒤 겁이 많이 났다. 하지만 감독님과 나이 차이가 많이 안나고 친해지다 보니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태용 감독은 "제목인 '거인'은 자신의 나이에 비해 너무 커버린, 마음은 고등학생이지만 몸만 커버린 영재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거인'은 다음달 13일 정식 개봉 예정이다. /조성준 기자

감동 전하는 우편배달부

英 '팻아저씨'·韓 '빨간 자전거'

우편배달부의 이야기로 따뜻한 감동을 전하는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이 스크린과 TV를 동시에 찾는다.

오는 9일 개봉하는 '행복배달부 팻아저씨'는 30여 년 동안 영국 어린이들의 교육을 담당한 BBC의 간판 TV 시리즈가 원작인 애니메이션이다.

영화는 주인공 팻 아저씨가 가족의 꿈인 이탈리아 여행을 위해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팻 아저씨는 작은 마을 그린데일의 만능 재결사이자 행복을 배달하는 우체부다. 모든 사이즈의 우편물 배달을 할 수 있다.

또한 헬리콥터·오토바이 사이드카·스노우 모바일 등도 운전할 줄 알고 벡파이프·튜바 등도 연주한다. 다양한 능력을 지닌 팻 아저씨의 활약이 아이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한다.

'행복배달부 팻아저씨'는 영국 개봉 당시 46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흥행성을 인정 받았다. '빨간 모자의 진실2'의 마이크 디사 감독이 연출했고, '드래곤 길들이기', '마다가스카' 제작진이 참여했다.

지난 2월부터 KBS1에서 방영중인 애니메이션 'TV동화 빨간 자전거 시즌2'도 우편배달부의 이야기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한국 만화의 전설로 불리는 김동화 화백의 작품이다.

'TV동화 빨간 자전거 시즌2'는 빨간 자전거로 작은 시골 마을 야화리를 누비는 꽁지머리 우편배달부가 주인공이다. 순박한 캐릭터가 펼치는 정겹고 따뜻한 감성 동화로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장병호 기자

'제보자' 박스오피스 수성

사회적 이슈 관심 흥행으로 이어져

임순례 감독의 영화 '제보자'가 10월 극장가 흥행을 이끌고 있다.

지난 2일 개봉한 '제보자'는 개봉 첫 날 10만7854명(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로 첫 등장했다. 다음날 '슬로우 비디오'에게 1위 자리를 잠시 내줬던 '제보자'는 4일 토요일부터 박스오피스 1위를 다시 탈환하며 6일 월요일까지 3일 연속 정상을 지키고 있다. 누적 관객수는 75만2212명을 기록하고 있다.

'제보자'는 지난 2005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복제 줄기세포 사건을 다룬 영화다. 박해일·유연석·이경영 등이 주연을 맡았으며 속도감 있는 연출과 배우들의 열연이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영화가 다룬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객들의 관심이 흥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8일에는 박중훈과 고 최진실이 주연했던 동명 영화를 리메이크한 '나의 사랑 나의 신부'와 정경호·정유미·김새론 주연의 '십억'(?) 등이 개봉한다. '제보자'가 선작을 제치고 박스오피스 수성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헬로우 고스트' 김영탁 감독과 차태현이 재회한 '슬로우 비디오'는 박스오피스 2위에 머무르고 있다. 6일까지의 누적 관객수는 69만7062명으로 '제보자'와 아슬아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우성·이솜 주연의 '마담 뺑덕'은 6일 현재 박스오피스 4위에 랭크됐다. 누적 관객수는 31만2213명이다. /장병호 기자

돌아온 류현진 6이닝 1실점 호투

벼랑 끝 다저스 8일 '커쇼 카드' 기사회생 노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24일 만에 마운드에 돌아와 호투했지만 팀은 1-3으로 패했다.

이로써 5전 3선승제인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에서 다저스는 1승 2패로 벼랑 끝에 섰다. 8일 벌어질 4차전에 선발 등판하는 클레이튼 커쇼의 어깨에 다저스의 운명이 걸렸다.

류현진은 7일 미국 세인트루이스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 선발 등판해 94개의 공을 뿌리며 6이닝 1실점 4삼진을 기록, 완벽히 부활한 모습을 보였다. 류현진은 1-1로 팽팽이 맞서던 7회 스콧 엘버트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류현진은 다저스 선발로 나와 제 몫을 다했다. 6이닝 동안 1홈런을 포함한 5안타를 맞고 1실점했지만 볼넷 하나를 허용, 삼진은 네 개를 잡았다. 94개의 공을 던졌고 그 중 스트라이크는 59개였다.

류현진은 1-1로 맞선 7회초 2사 후 자신의 타석 때 대타 스콧 반 슬라이크로 교체됐다. 류현진에게 마운드를 넘겨받은 스콧 엘버트가 7회 말 콜튼 웡에게 결승 투런 홈런을 맞았다. 이제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다저스는 8일 같은 장소에서 열릴 4차전에 1차전 선발로 나섰던 커쇼를 다시 출격시킨다.

류현진에게 이번 세인트루이스전은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이후 세 번째 출전한 포스트시즌 경기였다. 지난해 10월 15일 세인트루이스와 챔피언십시리즈 3차전에서는 7이닝 동안 3안타만 내주고 무실점하는 역투로 한국인 투수 최초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에서 승리를 따냈다.

이날 다저스 타선을 잠재우며 류현진과 선발 대결한 투수는 올 시즌 14승 10패, 평균자책점 3.82를 기록한 메이저리그 12년차 우완투수 존 래키였다.

류현진은 1회부터 시속 94마일(약 151㎞)에 이르는 빠른 공을 던지며 부상을 완벽히 씻어낸 모습을 보였다. 1이닝에만 삼진 2개를 잡아내며 산뜻하게 출발한 류현진은 2회에 무사 1·2루 위기 상황을 맞았으나 존 제이슨 삼진, 콜튼 웡과 투수 래키를 내야 땅볼로 요리하며 위기를 넘겼다.

류현진은 3회 선두 타자 카펜터에게 중월 솔로 홈런을 맞았다. 주자 실점 없이 이닝을 마친 류현진은 4회에는 1사 1루에서 몸쪽 병살 처리하고 공 6개로 마무리했다. 5회에는 투구 수를 하나 더 줄여 공 7개만 던지고 삼자범퇴로 막았다.

6회초 다저스는 따라 붙었다. 디비전시리즈 7타석 연속 삼진을 당했던 야시엘 푸이그가 3루타를 치고 나가 기회를 만들었다. 애드리안 곤살레스가 좌익수 뜬공, 맷 켐프가 삼진으로 물러나 또다시 맥없이 주저앉나 싶었지만 핸리 라미레스가 회심의 동점 2루타를 날려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다저스는 7회초 2사 후 류현진 타석이 되자 대타 스콧 반 슬라이크를 내보냈다. 류현진은 퀄리티 스타트만을 기록한 채 승패 없이 마운드를 넘겼다. 7회말 마운드에 오른 엘버트가 첫 타자 몰리나에게 2루타를 허용, 1사 3루에서 웡에게 우월 투런 홈런을 맞아 1-3으로 다시 끌려갔다. 웡은 앞선 타석에서 류현진에게 땅볼과 병살로 물러났었다.

끝내 다저스 타선은 살아나지 않았다. 9회 세인트루이스 마무리 트레버 로젠탈을 상대로 1사 1·2루의 마지막 찬스를 잡았지만 후속타 없이 그대로 경기를 마쳤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류현진은 7일(한국시간) 미국 세인트루이스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 세인트루이스와의 3차전 원정경기에 선발 등판해 호투했지만 팀은 1-3 패했다. /AP|뉴시스

손흥민 "금 딴 동료들 축하해요"

평가전 위해 귀국… 아시안게임 불참 속내 밝혀

손흥민(22·레버쿠젠·사진)이 28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낸 축구 대표팀에 함께 하지 못한 속내를 드러냈다.

파라과이·코스타리카와 평가전을 위해 귀국해 7일 파주 NFC(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 소집된 손흥민은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하고 동료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담담하게 축하를 전했지만 병역혜택의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을 일이다. 인터넷에는 손흥민이 병역혜택을 받지 못한 것을 희화화한 만화까지 돌고 있다.

손흥민은 "내 얘기가 만화로 나온 것을 봤지만 하나하나 신경 쓰지는 않는다. 나에 대한 관심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환하게 웃었다. 그러면서 장난스러운 농담을 더했다.

북한과의 결승전이 끝난 뒤 대표팀의 친구들에게 축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그는 "다들 너무 기뻐서인지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 마음에 담아뒀다가 다음에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날 파주 NFC에는 손흥민을 비롯해 이동국(전북), 차두리(서울), 기성용(스완지시티), 이청용(볼턴) 등 23명의 태극전사들이 새 사령탑인 울리 슈틸리케 감독과 인사하고 훈련에 들어갔다. 한국은 이달 A매치 주간에 10일 오후 8시 천안종합운동장에서 파라과이와 경기하고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코스타리카와 대결한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낸 중앙 수비수 장현수(광저우), 공격수 김승대(포항), K리그 클래식에서 최근 맹활약한 한교원(전북) 등도 가세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오늘 한국 축구 대표팀은 새로운 여행을 떠난다"며 "코치, 선수, 언론이 모두 새로운 자세로 새로운 각오를 품어 모두 함께 긍정적 효과를 내기를 바란다"고 대표팀의 첫 훈련을 앞둔 소감을 밝혔다.

/윤순호기자 sunoh

송지만 19시즌 끝 은퇴

프로야구 현역 최고령 타자 넥센 히어로즈의 송지만(41)이 선수생활을 마감하고 은퇴한다.

동산고, 인하대를 졸업하고 1996년 한화 이글스에서 프로생활을 시작한 송지만은 현대 유니콘스를 거쳐 넥센까지 무려 19시즌 동안 활약했다. 1938경기에 출전해 통산 타율 0.282, 311홈런, 1030타점을 기록했다.

송지만은 구단을 통해 "19년간 몸담았던 프로 생활을 마무리할 시점이 왔다. 지금까지 현역으로 뛸 수 있어서 행복했고 도움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송지만은 내년 시즌부터 넥센 2군인 화성 히어로즈 코치로 부임해 제2의 야구인생을 시작한다. /김학철기자

국민의 희망이 되어준
여러분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KB금융그룹이 함께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KB투자증권
KB생명
KB자산운용
KB캐피탈
KB저축은행
KB부동산신탁
KB인베스트먼트
KB신용정보
KB데이타시스템
KB금융그룹